국어 문법 이해·적용 학습지

음운편

음운의 체계 · 음운의 변동 · 종합 적용

A
음운의 체계
001~030 · 30문항

B
음운의 변동
031~095 · 65문항

C
종합 적용
096~120 · 25문항

대치동 재우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이 책의 약속

약속	내용	예
① 음운 수 세기	발음에서 자음·단모음·반모음을 하나씩 센다.	귀 → [귀]: ㄱ·ㅟ, 2개
② 세지 않는 것	초성 ㅇ, 소리의 길이, 억양은 음운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오 → [오]: ㅗ만 세어 1개
③ 된소리·겹받침	ㄲ·ㄸ·ㅃ·ㅆ·ㅉ은 각각 1개. 겹받침은 서로 다른 자음 2개를 적은 것이다.	쌍 → [쌍]의 ㅆ은 1개 / 넓-의 ㄻ은 ㄹ·ㅂ
④ ㅢ·ㅟ	따로 말이 없으면 단모음으로 본다.	뒤 → [뒤]: ㄷ·ㅟ, 2개
⑤ 반모음	j는 ㅣ 계열, w는 ㅗ·ㅜ 계열이며 각각 음운 1개. ㅢ는 ㅡ+j로 분석한다.	요 → [요]: j·ㅗ, 2개
⑥ 연음	소리가 자리만 옮겨 같은 소리로 이어지면 그 자체를 음운 변동으로 세지 않는다.	길에 → [기레]: ㄹ이 뒤 첫소리로 이어짐
⑦ 중간 단계	분석을 위한 표시이며 실제로 끊어 읽는 발음이 아니다.	분석형 A→B와 최종 발음 [ ]을 구별
⑧ 길이 표시 :	길이를 묻는 문제에서만 쓰며, 표시 바로 앞의 소리를 길게 발음한다.	소리 길이를 비교할 때 [눈]·[눈:]의 :를 확인

전체 구조

영역	핵심 질문	문항
A. 음운의 체계	무엇을 한 소리로 세며,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가?	001~030 · 30문항
B. 음운의 변동	어떤 환경에서 무엇이 바뀌거나 없어지고 더해지는가?	031~095 · 65문항
C. 종합 적용	여러 기준과 변동을 함께 적용해도 설명이 일관되는가?	096~120 · 25문항

■ 음운의 체계 → 조건 확인 → 소리 비교 → 과정 검증

묶음	내용	문항
A1	같은 소리와 다른 소리를 구별하기	001~005
A2	문자·음운·음절의 단위 나누기	006~010
A3	자음의 위치와 방법을 함께 읽기	011~015
A4	자음 분류의 조건을 함께 따지기	016~020
A5	단모음 표에서 이동과 공통점 찾기	021~025
A6	이중 모음의 구성과 음절 구별하기	026~030
B1	변동을 네 갈래로 나누기	031~035
B2	받침의 소리와 뒤 형태소 확인하기	036~040
B3	이웃한 자음의 영향 살피기	041~045
B4	구개음화의 조건과 경계 확인하기	046~050
B5	된소리되기의 조건 구별하기	051~055
B6	겹받침에서 사라지는 자음 찾기	056~060
B7	자음 탈락의 환경과 표기 비교하기	061~065
B8	모음의 변화에서 남은 소리 확인하기	066~070
B9	ㅎ이 만나는 소리에 따라 분석하기	071~075
B10	첨가된 소리가 다음 변화에 미치는 영향	076~080
B11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화 구별하기	081~085
B12	사잇소리의 분석 출발점 정하기	086~090
B13	여러 변동의 순서와 개수 정리하기	091~095
C1	자료의 분류 기준 검증하기	096~100
C2	같은 표기를 다른 환경에서 분석하기	101~105
C3	형태소 경계와 예외 판단하기	106~110
C4	복합 변동의 과정 검증하기	111~115
C5	새 자료의 분석 오류 수정하기	116~120

A 음운의 체계

A1 같은 소리와 다른 소리를 구별하기

요약집 문법01 ①~⑤

> **음성은 실제로 낸 소리이고,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이다.**

규칙 표

조건·대상	구별되는 모습	예	분류
실제로 낸 소리	목소리·발음의 구체적인 차이	두 사람이 '손'을 서로 다른 목소리로 말함	음성
뜻을 구별하는 소리 단위	같은 자리의 소리 하나가 달라짐	손 → 산: ㅗ와 ㅏ가 뜻을 구별함	음운
최소 대립쌍의 두 조건	같은 자리에서 소리 하나만 다름 + 뜻이 다름	눈(보는 기관) · 논(벼를 심는 곳)	최소 대립쌍
자음·모음 / 길이·억양	소리를 나눔 / 소리에 얹힘	눈·논의 모음 / 끝을 올려 질문함	분절 / 비분절 음운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눈·논: 모음 한 자리만 다르고 뜻도 다름	손·논: 첫소리와 끝소리가 모두 다름

예외·주의

목소리의 높이나 크기가 다르다고 음운이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뜻이 다르다는 조건만으로 최소 대립쌍을 정하지 않는다.

001 고르기

녹음 파일 A와 B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바다'를 말했다. 두 목소리는 높이와 음색이 달랐지만, 듣는 사람은 첫 자음을 모두 'ㅂ'으로 알아들었다. 자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① 목소리의 높이가 다르므로 첫 음운도 반드시 다르다.

② 같은 'ㅂ'으로 인식한 단위가 음성이고, 실제 녹음된 소리가 음운이다.

③ 구체적인 음성은 달라도 같은 음운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④ 음색이 다르면 단어를 이루는 자음의 수도 달라진다.

⑤ A와 B는 뜻이 다른 두 단어임이 확인되었다.

002 쓰기

다음 세 짝 중 자음 음운의 대립을 보여 주는 최소 대립쌍과 모음 음운의 대립을 보여 주는 최소 대립쌍을 각각 모두 고르자.

기호	단어와 뜻
가	발(신체 일부) · 팔(신체 일부)
나	배(타는 것) · 새(날짐승)
다	발(신체 일부) · 벌(곤충)

답란

대립	기호
자음 대립: 두 개	
모음 대립: 한 개	

003 고르기

'돌'은 작은 바위 조각, '풀'은 식물이다. 두 단어를 최소 대립쌍으로 묶은 분석을 평가한 말로 적절한 것은?

① 뜻이 다르면 다른 소리의 수와 관계없이 최소 대립쌍이다.

② 끝소리가 같으므로 최소 대립쌍이다.

③ 두 단어의 음절 수가 달라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④ 두 단어의 음운 수가 달라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⑤ 서로 다른 소리가 두 자리이므로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004 쓰기

다음 자료의 차이를 각각 ‘분절 음운 / 비분절 음운’으로 분류하고, 구별 요소를 ‘자음 / 길이 / 억양’에서 골라 쓰자.

기호	자료	구별 정보
가	말 → [말] / 말 → [말:]	타는 동물 / 사람이 하는 말
나	준비됐어: 끝을 내림 / 끝을 올림	완료를 알림 / 준비 여부를 물음
다	불 / 풀	첫소리만 다르고 뜻도 다름

답란

기호	분절 / 비분절	구별 요소
가		
나		
다		

005 고르기

다음 기록을 읽고 적절한 결론을 고르자.

> 같은 사람이 ‘문’을 작게 한 번, 크게 한 번 말했다. 뜻은 같았다.
>
> 다른 사람이 ‘문’의 ‘ㅜ’를 ‘ㅏ’로 바꾸어 ‘만’을 말하자 다른 뜻의 말이 되었다.
>
> 이 기록에는 길이의 대립이나 문장 억양의 기능에 관한 자료가 없다.

① 크게 말한 ‘문’의 ㅁ은 된소리가 된다.

② ㅜ와 ㅏ는 뜻을 구별하는 분절 음운으로 볼 수 있다.

③ ‘문’의 소리 길이가 두 번 모두 달랐다고 확정할 수 있다.

④ 억양은 뜻을 구별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증명되었다.

⑤ 같은 사람이 말한 모음이므로 ㅜ와 ㅏ는 같은 음운이다.

A2 문자·음운·음절의 단위 나누기

> **적힌 기호의 수, 음운 수, 음절 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같은 '안'을 서로 다른 단위로 본다

문자	ㅇ · ㅏ · ㄴ	**3개**	적힌 자음·모음 글자
음운	ㅏ · ㄴ	**2개**	초성 ㅇ은 소리가 없음
음절	안	**1개**	모음을 중심으로 묶인 단위

규칙 표

낱말: 표기 → [발음]	낱자 수	음운 수	음절 수
쑥 → [쑥]	3: ㅆ·ㅜ·ㄱ	3: ㅆ·ㅜ·ㄱ	1
몫 → [목]	4: ㅁ·ㅗ·ㄱ·ㅅ	3: ㅁ·ㅗ·ㄱ	1
얘 → [얘]	2: ㅇ·ㅒ	2: j·ㅒ	1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쑥의 ㅆ: 된소리 한 개	몫의 ㄳ: 서로 다른 자음 두 개를 적음

예외·주의

낱자 수는 표기에 적힌 자음·모음 기호를 센 수이다. 음운 수는 발음을 기준으로 세므로 표기된 겹받침이 모두 발음되는지 확인한다.

006 쓰기

‘우산’을 [우산]으로 발음한다. 적힌 자음·모음 글자의 수, 음운 수, 음절 수를 차례로 쓰자. 글자는 ‘ㅇ·ㅜ·ㅅ·ㅏ·ㄴ’처럼 낱자로 센다.

답란

낱자 수	음운 수	음절 수

007 고르기

‘아’와 ‘앙’을 [아], [앙]으로 발음할 때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아’의 초성 ㅇ은 비음이다.

② ‘앙’에 적힌 두 ㅇ은 모두 소리가 난다.

③ ‘앙’의 받침 ㅇ도 소리가 없다.

④ 두 말은 각각 한 음절이지만, 소리 나는 자음의 수는 다르다.

⑤ 두 말은 한 음절이므로 음운 수도 반드시 같다.

008 O·X

다음은 글자와 소리를 비교한 기록이다. 각 기록을 O/X로 판단하자.

기호	판단 문장
가	때 → [때]의 ㄸ은 한 자음이므로 음운은 모두 두 개이다.
나	값 → [갑]은 겹받침을 적었으므로 실제 발음에서도 종성 자음을 두 개 센다.
다	오리 → [오리]는 초성 ㅇ을 제외하면 음운이 세 개이다.

답란

기호	O / X
가	
나	
다	

009 고르기

‘이 → [이]·너 → [너]·온 → [온]·집 → [집]’을 소리의 구성에 따라 나눈 것으로 옳은 것은? V는 모음, C는 자음이다.

① 이 V / 너 CV / 온 VC / 집 CVC

② 이 CV / 너 CV / 온 CVC / 집 CVC

③ 이 V / 너 VC / 온 CV / 집 CVC

④ 이 V / 너 CV / 온 V / 집 CV

⑤ 이 CV / 너 VC / 온 VC / 집 CV

010 쓰기

다음 분석을 기준으로 ‘여우 → [여우]’의 ㉠ 음절 수와 ㉡ 음운 수를 쓰자.

‘ㅕ = j+ㅓ’, ‘ㅜ’는 단모음이며 초성 ‘ㅇ’에는 소리가 없다.

답란

㉠ 음절 수	㉡ 음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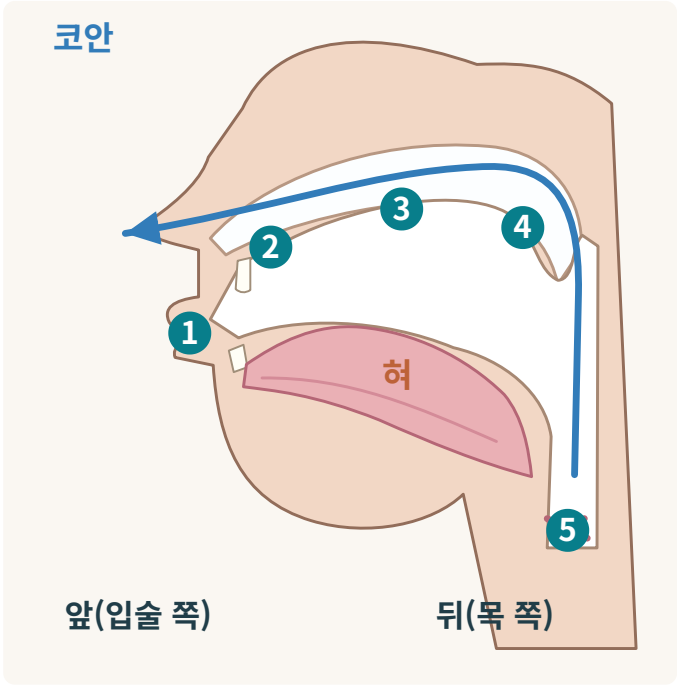
A3 자음의 위치와 방법을 함께 읽기

요약집 문법01 ⑦~⑨

자음 하나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조음 위치는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는 곳이고, 조음 방법은 막거나 내보내는 방식이다.

자음은 어느 자리에서 나는가?



1 입술
ㅂ·ㅃ·ㅍ·ㅁ

2 잇몸
ㄷ·ㄸ·ㅌ·ㅅ·ㅆ·ㄴ·ㄹ

3 센입천장
ㅈ·ㅉ·ㅊ

4 여린입천장
ㄱ·ㄲ·ㅋ·ㅇ(받침)

5 목청
ㅎ

파란 화살표: 비음 ㅁ·ㄴ·ㅇ에서 공기가 코로 나가는 길
입안이 막혀도 코로 가는 통로가 열려 있으면 공기가 코로 나온다.

규칙 표

조음 방법	입술소리 (양순음)	잇몸소리 (치조음)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후음)	울림
파열음	ㅂ·ㅃ·ㅍ	ㄷ·ㄸ·ㅌ	—	ㄱ·ㄲ·ㅋ	—	안울림소리
파찰음	—	—	ㅈ·ㅉ·ㅊ	—	—	안울림소리
마찰음	—	ㅅ·ㅆ	—	—	ㅎ	안울림소리
비음	ㅁ	ㄴ	—	ㅇ	—	울림소리
유음	—	ㄹ	—	—	—	울림소리

조음 방법의 뜻

이름	소리 내는 방법	자음	예
파열음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림	ㄱ·ㄲ·ㅋ·ㄷ·ㄸ·ㅌ·ㅂ·ㅃ·ㅍ	보 → [보]: ㅂ
파찰음	막았던 공기를 마찰을 일으키며 내보냄	ㅈ·ㅉ·ㅊ	자 → [자]: ㅈ
마찰음	통로를 좁혀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게 함	ㅅ·ㅆ·ㅎ	소 → [소]: ㅅ
비음	입안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냄	ㅁ·ㄴ·ㅇ	모 → [모]: ㅁ
유음	혀끝을 가볍게 대었다 떼거나 혀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냄	ㄹ	라 → [라]: ㄹ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보의 ㅂ·모의 ㅁ: 조음 위치는 같음	같은 위치라는 이유로 조음 방법까지 같다고 할 수 없음

예외·주의
—는 해당 자음이 없다는 뜻이다. 표의 ㅇ은 받침 소리이며, 비음·유음은 울림소리이다.

---

011 고르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음을 고르자.

두 입술에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다.
입안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낸다.

① ㅂ ② ㅁ ③ ㄴ ④ ㅇ(받침) ⑤ ㄹ

012 쓰기

두 쌍을 비교하여 ‘조음 위치: 같음/다름’, ‘조음 방법: 같음/다름’을 쓰자.

기호	자료·물음
가	ㅍ · ㅋ
나	ㄹ · ㄴ

답란

기호	조음 위치: 같음 / 다름	조음 방법: 같음 / 다름
가		
나		

013 고르기

조음 방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린다.

② 파찰음은 막았던 공기를 마찰을 일으키며 내보낸다.

③ 마찰음은 통로를 좁혀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게 한다.

④ 유음은 혀끝을 가볍게 대었다 떼거나 혀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낸다.

⑤ 비음은 입과 코를 모두 막아 공기가 전혀 나오지 않게 한다.

014 쓰기

자음 카드 ‘ㄱ·ㄴ·ㄹ·ㅁ·ㅅ·ㅇ·ㅎ’에서 울림소리 카드를 모두 고르고, 그 안을 비음과 유음으로 나누자. ‘ㅇ’은 받침 소리이다.

답란

비음	유음

015 고르기

다음 표의 빈칸 ㉠·㉡에 들어갈 자음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음	위치	방법
ㅂ	입술소리	파열
㉠	입술소리	비음
㉡	여린입천장소리	비음
ㄱ	여린입천장소리	파열

① ㉠ ㄴ / ㉡ ㅇ ② ㉠ ㅁ / ㉡ ㄹ ③ ㉠ ㅁ / ㉡ ㅇ ④ ㉠ ㅂ / ㉡ ㅋ ⑤ ㉠ ㄹ / ㉡ ㄴ

A4 자음 분류의 조건을 함께 따지기

요약집 문법01 ⑦~⑩

> **예사·된·거센소리는 목소리 크기의 구분이 아니다.**

규칙 표

위치·방법	자음	예	소리의 세기
입술 파열음의 세기만 바꿈	ㅂ · ㅃ · ㅍ	바 · 빠 · 파 → [바] · [빠] · [파]	예사 · 된 · 거센
잇몸 파열음의 세기만 바꿈	ㄷ · ㄸ · ㅌ	다 · 따 · 타 → [다] · [따] · [타]	예사 · 된 · 거센
여린입천장 파열음의 세기만 바꿈	ㄱ · ㄲ · ㅋ	가 · 까 · 카 → [가] · [까] · [카]	예사 · 된 · 거센
센입천장 파찰음의 세기만 바꿈	ㅈ · ㅉ · ㅊ	자 · 짜 · 차 → [자] · [짜] · [차]	예사 · 된 · 거센
잇몸 마찰음	ㅅ · ㅆ; 거센소리 짝 없음	사 · 싸 → [사] · [싸]	예사 · 된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다·따: 위치·방법은 같고 세기가 다름	다·나: 파열음·비음이므로 방법부터 다름

예외·주의

ㅎ과 비음·유음에는 이 표와 같은 세기의 짝을 두지 않는다. ㅎ은 교과서에 따라 예사소리 칸에 넣기도 한다. 학교 교과서의 표를 따른다.

016 고르기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은 같고 소리의 세기만 다른 두 자음으로 묶인 것은?

① ㅂ·ㅁ ② ㄷ·ㄱ ③ ㅈ·ㅅ ④ ㅅ·ㅆ ⑤ ㄴ·ㄹ

017 쓰기

각 설명에 해당하는 자음을 하나씩 쓰자.

기호	자료·물음
가	여린입천장소리이면서 파열음이고 거센소리이다.
나	센입천장소리이면서 파찰음이고 된소리이다.
다	잇몸소리이면서 마찰음이고 예사소리이다.

답란

기호	자음
가	
나	
다	

018 고르기

다음 실험 기록의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같은 사람이 예사소리 ‘ㅂ’을 유지하며 ‘바’를 작게도 크게도 말했다. 또 된소리 ‘ㅃ’을 유지하며 ‘빠’를 작게 말했다.

① 음량과 예사소리·된소리의 구분은 같은 기준이 아니다.

② 크게 말한 ‘바’의 ㅂ은 반드시 ㅃ으로 바뀐다.

③ 작게 말한 ‘빠’의 ㅃ은 반드시 ㅂ으로 바뀐다.

④ ‘빠’의 첫소리는 작은 ㅂ 두 개가 이어진 것이다.

⑤ 작게 말한 두 소리는 모두 예사소리이다.

019 고쳐 쓰기

다음 세 기록 가운데 잘못된 기록 두 개를 골라, 잘못 쓴 항목만 고치자.

기호	자료·물음
가	ㅌ = 잇몸소리 + 파열음 + 거센소리
나	ㅆ = 잇몸소리 + 파찰음 + 된소리
다	ㅋ = 여린입천장소리 + 파열음 + 된소리

답란

틀린 기호	바르게 고친 말

020 고르기

국어의 자음 19개에서 ‘파열음’이면서 ‘거센소리’인 자음을 빠짐없이 고른 것은?

① ㅋ·ㅌ·ㅍ·ㅊ ② ㅋ·ㅌ·ㅍ ③ ㄲ·ㄸ·ㅃ ④ ㅂ·ㄷ·ㅋ ⑤ 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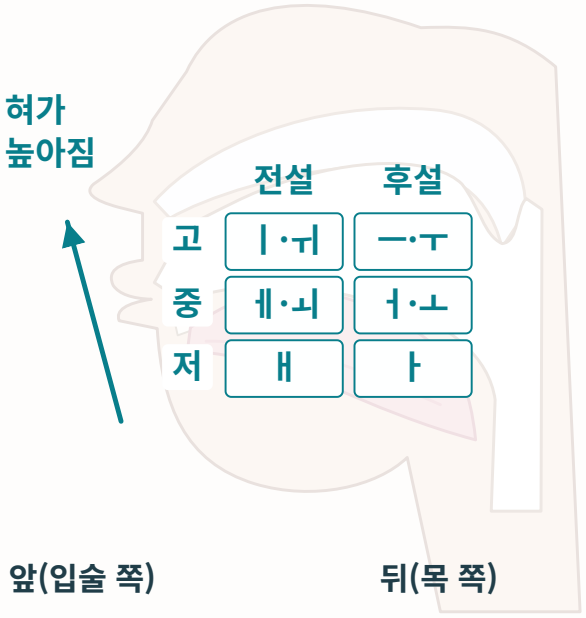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을 유지한다.

10단모음: 앞뒤 위치와 입술 모양을 따로 읽기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없음)	ㅏ	(없음)

(없음): 해당 모음 없음. ㅚ·ㅟ는 단모음 발음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두 모음의 이중 모음 발음도 허용되지만 표의 분류와는 구별한다.

단모음: 혀의 앞뒤와 높이를 함께 보기



혀의 앞뒤
전설: 앞쪽
후설: 뒤쪽

혀의 높이
고: 입천장에 가까움
중: 그 사이
저: 입천장에서 멂

고모음의 '고'는 혀의 높이이다. 목소리의 높이가 아니다.
입안의 칸은 분류를 겹쳐 놓은 개념 지도이며 정확한 혀 좌표가 아니다.
같은 칸의 두 모음은 혀의 기준은 같고 입술 모양이 다르다.

단모음: 입술을 둥글게 모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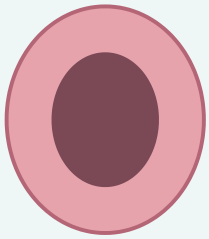
평순



입술을 둥글게 모으지 않음

ㅣ

원순



입술을 둥글게 모음

ㅟ

ㅣ와 ㅟ: 혀의 앞뒤·높이는 같고 입술 모양이 다르다.
두 모음은 전설·고모음이다.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를 비교한다.

규칙 표

분류 기준	무엇을 보는가	예: 표기 → [발음]	분류
혀의 앞뒤 위치	높아지는 혀 부분이 앞인가 뒤인가	기 · 구 → [기] · [구]	ㅣ 전설 / ㅜ 후설
혀의 높이	혀가 입천장에 가까운가 먼가	그 · 거 · 가 → [그] · [거] · [가]	ㅡ 고 / ㅓ 중 / ㅏ 저
입술 모양	입술을 둥글게 모으는가	그 · 구 → [그] · [구]	ㅡ 평순 / ㅜ 원순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고모음: 혀가 입천장 쪽으로 높아짐	고모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크게 내는 것은 아님

예외·주의
10단모음 체계의 표에서는 ㅚ·ㅟ를 단모음으로 분류한다. 두 모음의 이중 모음 발음도 허용되지만, 표 안의 분류와 발음 허용은 구별한다.

---

021 고르기

10단모음 체계에서 '전설·원순·중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① ㅟ ② ㅗ ③ ㅐ ④ ㅜ ⑤ ㅚ

022 쓰기

10단모음 표에서 ㅓ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다른 두 기준은 그대로 두고, 지정한 기준 하나만 바꾼 결과를 쓰자.

기호	자료·물음
가	입술 모양만 평순에서 원순으로 바꾸기
나	혀의 높이만 중모음에서 고모음으로 바꾸기
다	혀의 앞뒤 위치만 후설에서 전설로 바꾸기

답란

기호	결과 모음
가	
나	
다	

023 고르기

‘ㅣ·ㅟ·ㅡ·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네 모음은 모두 높은 음정으로만 발음할 수 있다.

② ㅣ와 ㅟ는 혀의 앞뒤 위치가 다르다.

③ ㅡ와 ㅜ는 혀의 높이와 앞뒤 위치가 같고 입술 모양이 다르다.

④ ㅟ와 ㅜ는 모두 전설 모음이다.

⑤ ㅣ와 ㅡ는 모두 원순 모음이다.

024 쓰기

‘ㅐ’와 ‘ㅗ’를 비교한다. 달라지는 분류 기준을 모두 쓰고, 각 모음이 그 기준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쓰자. 비교 기준은 ‘혀의 앞뒤 위치 / 혀의 높이 / 입술 모양’이다.

답란

달라지는 기준	ㅐ의 분류	ㅗ의 분류

025 고르기

다음 판단 중 옳은 것은?

① ㅚ·ㅟ를 단모음 표에 넣더라도 두 모음의 이중 모음 발음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단모음은 발음 중 혀와 입술 모양이 계속 달라지는 모음이다.

③ 고모음은 큰 목소리로 발음하는 모음이다.

④ ㅟ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단모음 표에는 ㅟ를 넣을 수 없다.

⑤ 국어의 단모음에는 원순 모음이 없다.

A6 이중 모음의 구성과 음절 구별하기

요약집 문법01 ⑥·⑪~⑮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루지만, 혼자서 음절을 이루지는 못한다.

■ 규칙 표

조건	구성	예: 표기 → [발음]	음절
j + 단모음	ㅑ·ㅒ·ㅕ·ㅖ·ㅛ·ㅠ	야 → [야]: j+ㅏ	하나
w + 단모음	ㅘ·ㅙ·ㅝ·ㅞ	왜 → [왜]: w+ㅐ	하나
ㅡ + j	ㅢ	의 → [의]: ㅡ+j	하나

■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야의 j: ㅏ와 한 음절의 모음 부분을 이룸	j 하나만 떼어 독립된 음절로 셀 수 없음

예외·주의

j는 ㅣ 계열, w는 ㅗ·ㅜ 계열의 반모음 기호이다. 음운 수와 음절 수를 같은 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

026 쓰기

'ㅒ·ㅝ·ㅢ'를 이 책의 분석에 따라 음운으로 나누자. 'j·w'와 단모음 기호를 써서 답한다.

답란

이중 모음	음운
ㅒ	
ㅝ	
ㅢ	

---

027 고르기

단모음과 반모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단모음과 반모음은 모두 혼자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

② 반모음만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있다.

③ 반모음은 공기를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이다.

④ 둘 다 자음과 같은 장애 없이 나지만,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있는지는 다르다.

⑤ j와 w는 각각 독립된 한 음절이다.

028 표 채우기

제시된 분석만 이용하여 표를 완성하자.

발음 자료	음운 분석	음절 수	음운 수
‘와’	w+ㅏ	(가)	(나)
‘우아’	ㅜ+ㅏ	(다)	(라)

‘우아’는 ‘우/아’로 두 음절을 유지한 발음이다.

답란 : 위 자료 표의 빈칸에 쓴다.

029 고쳐 쓰기

‘예 → [예]’를 ‘j+ㅖ’로 분석한다. 다음 기록의 잘못을 두 군데 고쳐 쓰자.

“초성 ㅇ도 자음 소리가 나므로 음운은 세 개이다. 또 j와 ㅖ를 따로 셌으므로 음절도 두 개이다.”

답란

틀린 부분	바르게 고친 말
음운 수	
음절 수	

030 고르기

옳은 기록만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ㅃ은 입술소리·파열음이며 한 자음이다.

ㄴ ㅚ와 ㅟ를 단모음으로 분류하면 혀의 높이만 다르다.

ㄷ 반모음 w가 쓰인 음절은 반드시 자음으로 시작한다.

ㄹ 받침 ㅇ은 여린입천장소리·비음이다.

① ㄱ·ㄴ ② ㄱ·ㄴ·ㄹ ③ ㄴ·ㄷ ④ ㄱ·ㄷ·ㄹ ⑤ ㄱ·ㄴ·ㄷ·ㄹ

B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 한눈 지도

유형	음운 수	이 책에서 다루는 현상·묶음	대표 예: 표기 → [발음]
교체	그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B2) · 비음화·유음화(B3) · 구개음화(B4) · 된소리되기(B5) · 반모음화(B8)	국수 → [국쑤]
탈락	1개 줄어듦	자음군 단순화(B6) · ㄹ 탈락·ㅎ 탈락(B7) · ㅡ 탈락·동일 모음 탈락(B8)	크-+-어 → 커 → [커]
첨가	1개 늘어남	ㄴ 첨가(B10) · 반모음 첨가(B11)	담요 → [담뇨]
축약	1개 줄어듦	거센소리되기(B9) · 모음 축약(B8)	입학 → [이팍]
네 유형 밖	따로 확인	연음(B2)은 그 자체가 변동이 아님. 사잇소리 현상(B12)은 된소리되기나 ㄴ 첨가 등으로 나타남.	길에 → [기레] / 나무+잎 → [나문닙]

주의 : 음운 수의 변화는 위 표의 개별 변화 한 번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 변화가 함께 일어나면 늘고 준 수를 합쳐 최종 음운 수를 확인한다.

변동은 소리의 수뿐 아니라 어떤 소리가 남았는지도 보아야 구별된다.

음운 변동의 네 유형

교체

A → B

음운 수 그대로

목도리 → [목또리]

탈락

A + B → A (또는 B)

음운 수 1개 감소

곬 → [골]

첨가

A + B → A + C + B

음운 수 1개 증가

담요 → [담뇨]

축약

A + B → C

음운 수 1개 감소

입학 → [이팍]

A·B·C는 서로 다른 음운을 가리킨다.
유형은 음운 수와 함께 어떤 소리가 남았는지 보아 구별한다.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곬: 기존 ㄹ이 남음 → 탈락	입학: ㅂ·ㅎ 대신 새 ㅍ이 남음 → 축약

예외·주의

음운 변동의 유형은 교체·탈락·첨가·축약이다. 음운 변동 현상은 비음화·구개음화 등 구체적인 규칙을 가리킨다.

■ 분석 4단계

단계	확인할 것
1단계 조건 보기	받침은? 뒤에 오는 소리는? 뒤에 붙는 말의 성격은?
2단계 소리 맞대기	표기의 음운과 발음의 음운을 칸칸이 맞댄다.
3단계 현상 이름	비음화·자음군 단순화처럼 실제로 일어난 현상을 쓴다.
4단계 유형·횟수·음운 수	교체·탈락·첨가·축약, 적용 횟수, 음운 수의 전후를 구별한다.

031 고르기

‘접다’의 어간에 ‘-는’이 붙은 ‘접는’은 [점는]으로 발음한다. 첫 음절 받침의 변화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ㅂ이 없어졌으므로 탈락만 일어났다.

② ㅂ 뒤에 ㅁ이 더해졌으므로 첨가이다.

③ ㅂ과 ㄴ이 합쳐져 ㅁ 하나가 되었으므로 축약이다.

④ ㅂ 하나가 ㅁ 하나로 바뀌었으므로 교체이다.

⑤ ㅂ과 ㄴ이 모두 탈락하고 ㅁ을 새로 붙였다.

032 쓰기

A·B·C는 서로 다른 음운이다. 두 분석을 ‘탈락 / 축약’으로 분류하고, 판단의 핵심을 ‘기존 소리 하나가 남음 / 새 소리 하나가 됨’에서 골라 쓰자.

기호	자료·물음
가	A+B → B
나	A+B → C

답란

기호	탈락 / 축약	판단 근거
가		
나		

033 고르기

개별 변화와 음운 변동 유형을 잘못 연결한 것은?

① ㄱ+ㅎ→ㅋ: 탈락

② ㄷ→ㄴ: 교체

③ ㅡ+ㅓ→ㅓ: 탈락

④ ㅎ+ㅏ→ㅏ(ㅎ이 없어짐): 탈락

⑤ ㅁ+ㅣ→ㅁ+ㄴ+ㅣ: 첨가

034 쓰기

가상의 소리열에 다음 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자. 다른 변화는 없다.

한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었다.
자음 하나가 탈락했다.
다른 자리에 자음 하나가 첨가되었다.

㉠ 전체 음운 수의 증감을 '증가/감소/유지'에서 고르고, ㉡ '음운 수가 같으므로 교체만 일어났다'는 결론을 O/X로 판단하자.

답란

㉠ 증가 / 감소 / 유지	㉡ O / X

035 고르기

다음 중 제시된 발음에서 소리 자체의 변동 없이 받침이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지기만 한 것은?

① 굽는 → [굼는]

② 좋아 → [조아]

③ 돌이 → [도리]

④ 먹고 → [먹꼬]

⑤ 먹히다 → [머키다]

B2 받침의 소리와 뒤 형태소 확인하기

요약집 문법02 ⑥·⑦

> **받침의 표기, 뒤 소리, 뒤에 붙는 말의 성격을 함께 확인한다.**

규칙 표

받침	뒤에 아무것도 없음·자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어미·접미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홑받침·쌍받침	일곱 대표음으로 발음; 빚 → [빋]	본래 받침을 뒤로 이어 발음; 빚어 → [비저]	대표음으로 바꾼 뒤 이어 발음; 겉옷 → [거돋]
겹받침	하나를 없애고 남은 받침을 살핌; 몫 → [목]	보통 두 자음이 나뉘어 발음; 몫을 → [목쓸]	하나를 없앤 뒤 남은 자음을 이어 발음; 값어치 → [가버치]

음절 끝의 대표음

대표음	대응하는 받침
ㄱ	ㄱ·ㄲ·ㅋ
ㄷ	ㄷ·ㅌ·ㅅ·ㅆ·ㅈ·ㅊ·ㅎ
ㅂ	ㅂ·ㅍ
ㄴ·ㄹ·ㅁ·ㅇ	각각 그대로 발음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빚어: 어미 앞에서 본래 ㅈ을 이어 발음	겉옷: 실질 형태소 앞에서 대표음 ㄷ으로 바꾼 뒤 이어 발음

예외·주의

말끝은 뒤에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을 때이다. 위 표에 더해 구개음화·ㅎ 탈락·된소리되기를 따로 확인한다. 뒤 실질 형태소가 이·야·여·요·유로 시작하면 ㄴ 첨가(B10)를 먼저 살핀다.

낱말 풀이 : 형태소 =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실질 형태소 =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 형식 형태소 = 조사·어미·접사. 용언 = 동사·형용사. 어간 = 활용할 때 중심이 되는 부분, 어미 = 어간 뒤에 붙어 바뀌는 부분.

036 표 채우기

‘낮’과 ‘낮에’를 표준 발음으로 읽고 아래 칸을 채우자.

자료	발음	표기된 ㅈ의 처리
낮	(가)	(나)로 교체
낮+에(조사)	(다)	원래 자음이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짐

답란 : 위 자료 표의 빈칸에 쓴다.

037 고르기

‘옷에’는 [오세], ‘옷 안’은 한 마디로 이어 발음할 때 [오단]이다. ‘에’는 조사이고 ‘안’은 내부를 뜻하는 실질 형태소이다. 차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모음 앞에서는 언제나 받침을 ㄷ으로 바꾼다.

② 두 자료 모두 ㅅ을 그대로 이어 발음한다.

③ ‘옷에’의 ㅅ도 먼저 ㄷ으로 바꾼 뒤 다시 ㅅ으로 바꾼다.

④ 연음이 있으면 같은 자료에 음운 변동은 있을 수 없다.

⑤ 뒤가 조사인지 실질 형태소인지에 따라 받침의 처리가 달라진다.

038 쓰기

‘밖·숲·낫·부엌’을 각각 말끝에서 발음한다고 할 때, 마지막 음절 받침에서 실제로 나는 자음만 차례로 쓰자. 겹받침은 없다.

답란

밖	숲	낫	부엌

039 고르기

‘흙이 → [흘기]’에서 겹받침 ㄺ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ㄹ은 탈락하고 ㄱ만 남는다.

② ㄹ과 ㄱ이 서로 다른 음절에 나뉘어 모두 발음된다.

③ ㄱ이 탈락하고 ㄹ만 뒤로 이어진다.

④ ㄺ은 ㄲ과 마찬가지로 한 자음이다.

⑤ 두 자음이 모두 탈락하고 ㄱ이 첨가된다.

040 O·X

기호	자료·물음
가	‘낫·낮·낯’을 각각 말끝에서 발음하면 모두 [낟]이다.
나	각 낱말에 조사 ‘을’을 붙이면 [나슬]·[나즐]·[나츨]이다.

이 자료에 맞으면 O, 맞지 않으면 X로 표시하자.

기호	판단 문장
㉠	서로 다른 자음이 음절 끝에서 같은 대표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
㉡	말끝 발음이 같으므로 조사 앞에서도 세 받침을 모두 ㄷ으로 발음한다.
㉢	발음이 같아진 사실만으로 세 낱말의 뜻과 표기까지 같다고 할 수 없다.

답란

기호	O / X
㉠	
㉡	
㉢	

B3 이웃한 자음의 영향 살피기

요약집 문법02 ⑧·⑨

> **비음화는 비음으로, 유음화는 유음 ㄹ로 바뀌는 변화이다.**

규칙 표

조건	바뀌는 모습	영향을 주는 소리 → 바뀌는 소리	예: 표기 → [발음]	유형
ㄱ·ㄷ·ㅂ 뒤에 비음 ㄴ·ㅁ	ㄱ→ㅇ / ㄷ→ㄴ / ㅂ→ㅁ	뒤 ㄴ·ㅁ → 앞 ㄱ·ㄷ·ㅂ	먹물 → [멍물]	교체: 비음화
ㅁ·ㅇ 뒤의 ㄹ 등	ㄹ→ㄴ	앞 ㅁ·ㅇ → 뒤 ㄹ	대통령 → [대통녕]	교체: 유음의 비음화(ㄹ→ㄴ)
ㄹ과 이웃한 ㄴ	ㄴ→ㄹ	앞 ㄹ → 뒤 ㄴ / 뒤 ㄹ → 앞 ㄴ	설날 → [설랄] / 신라 → [실라]	교체: 유음화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신라: ㄴ→ㄹ이므로 유음화	대통령: ㄹ→ㄴ이므로 비음화

예외·주의

일부 한자어의 ㄴ+ㄹ에서는 유음화 대신 ㄹ→ㄴ이 일어난다. ㄱ·ㄷ·ㅂ의 비음화는 조음 위치를 유지하고 파열음을 비음으로 바꾼다.

041 쓰기

제시된 발음에서 바뀐 자음을 '원래 소리→결과 소리'로 쓰자.

기호	표기 → [발음]	이 문항에서 비교할 부분
가	막내 → [망내]	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나	믿는 → [민는]	ㄷ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다	앞문 → [암문]	중간 분석 압문→암문의 변화만 비교

답란

기호	원래 소리 → 결과 소리
가	
나	
다	

042 고르기

'업무 → [엄무]'의 받침 ㅂ→ㅁ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입술이라는 위치는 유지되고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뀐다.

② 조음 방법은 유지되고 입술소리가 잇몸소리로 바뀐다.

③ ㅂ이 같은 위치의 된소리 ㅁ으로 바뀐다.

④ 받침이 완전히 없어져 음운 수가 한 개 줄어든다.

⑤ ㅂ을 유지한 채 ㅁ 하나를 더 발음한다.

043 쓰기

'칼날 → [칼랄]'과 '난로 → [날로]'를 비교하자. 두 자료에서 공통으로 일어난 자음의 변화를 '무엇→무엇'으로 쓰자. 각 자료에서 영향을 주는 ㄹ이 바뀐 자음의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쓰자.

답란

공통 변화	칼날: 영향을 주는 ㄹ의 위치	난로: 영향을 주는 ㄹ의 위치

044 고르기

‘종로 → [종노]’와 ‘의견란 → [의견난]’의 공통점을 고르자. 제시한 발음만 분석한다.

① 앞의 ㄴ이 ㄹ로 바뀐다.

② 앞의 ㅇ이 ㄹ로 바뀐다.

③ 결과 소리가 ㄹ이므로 유음화이다.

④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이다.

⑤ 서로 이웃한 두 자음이 ㄴ 하나로 합쳐진다.

045 표 채우기

‘협력 → [혐녁]’을 아래 단계 표의 순서로 분석한다.

단계 표에는 바뀐 소리·현상·유형을 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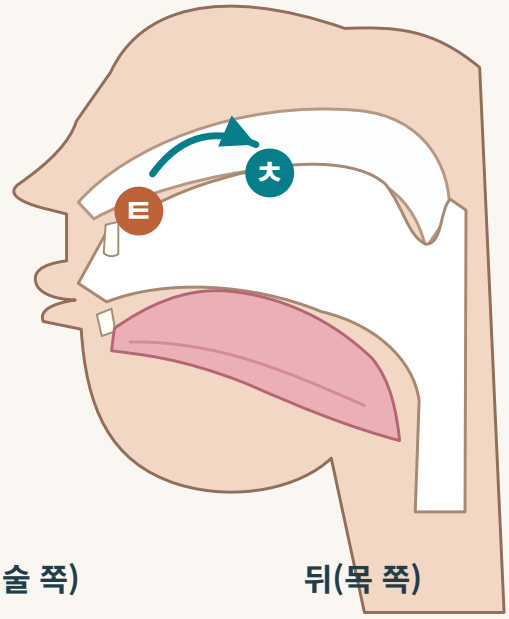
답란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협력 → 협녁			
2	협녁 → [혐녁]			

B4 구개음화의 조건과 경계 확인하기

끝소리 ㄷ·ㅌ 뒤에 ㅣ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구개음화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구개음화: 잇몸에서 센입천장으로



ㅌ: 잇몸소리
파열음 · 거센소리

ㅊ: 센입천장소리
파찰음 · 거센소리

조음 위치: 잇몸 → 센입천장 / 방법: 파열 → 파찰
소리의 세기는 거센소리로 유지된다. 조건이 맞을 때에만 구개음화한다.

■ 규칙 표

예: 표기 → [발음]	앞이 끝소리 ㄷ·ㅌ	뒤가 ㅣ 또는 j	뒤가 형식 형태소	구개음화
맏+이 → [마지]	○	○	○ 접미사	○
디딤돌 → [디딤똘]: 첫 ㄷ·ㅣ	× 끝소리가 아님	○	× 한 형태소 안	×
밭+일 → [반닐]	○	○	× 실질 형태소	×

■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맏이: 접미사 -이와 만나 ㄷ→ㅈ	밭일: 뒤가 실질 형태소여서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음

예외·주의

ㄷ 뒤 접미사 -히-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 뒤 구개음화가 이어질 수 있다. 잇몸 파열음이 센입천장 파찰음으로 바뀐다.

046 쓰기

‘밭+이(조사)’의 발음을 쓰고, 자음의 변화와 음운 변동 현상을 쓰자. 끝소리 ㅌ이 조사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한다.

답란

발음	바뀐 자음	현상

047 고르기

‘마디 → [마디]’의 ㄷ이 ㅈ으로 바뀌지 않는 까닭을 구개음화 조건과 관련지어 가장 정확히 설명한 것은? ‘마디’는 이 분석에서 하나의 형태소이다.

① ㄷ은 원래 구개음화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ㅣ는 모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 ㄷ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④ 두 음절짜리 말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⑤ ㄷ을 적으면 발음에서도 어떤 경우든 ㄷ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048 O·X

기호	표기 → [발음]	뒤 요소의 성격
가	밭이 → [바치]	이: 조사
나	밭이랑 → [반니랑]	이랑: 밭에 만든 두둑이라는 실질 뜻

두 자료에 대한 판단을 각각 O/X로 표시하자.

기호	판단 문장
㉠	가는 구개음화의 조건에 해당한다.
㉡	나는 ㅌ 바로 뒤에 글자 '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바치랑]이어야 한다.
㉢	두 자료를 구별하려면 뒤 요소의 형태소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답란

기호	O / X
㉠	
㉡	
㉢	

049 고르기

'닫히다 → [다치다]'의 관련 자음을 'ㄷ+ㅎ→ㅌ→ㅊ'으로 분석한다. 두 화살표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유형을 차례로 고른 것은?

먼저 단계 표를 채운 뒤 고르자.

답란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ㄷ+ㅎ → ㅌ			
2	ㅌ → ㅊ			

① 교체 → 교체 ② 교체 → 탈락 ③ 탈락 → 축약 ④ 축약 → 첨가 ⑤ 축약 → 교체

050 쓰기

ㅌ→ㅊ의 구개음화에서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소리의 세기는 각각 유지되는가 달라지는가? 각 기준의 전후 분류도 함께 쓰자.

답란

기준	변화 전	변화 후	유지 / 달라짐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소리의 세기			

B5 된소리되기의 조건 구별하기

요약집 문법02 ②·⑪

> **된소리는 하나의 자음이며, 예사소리 하나가 된소리 하나로 바뀌므로 된소리되기는 교체이다.**

규칙 표

조건	바뀌는 모습	예: 표기 → [발음]	같게 처리하지 않는 짝	유형
받침 소리 ㄱ·ㄷ·ㅂ 뒤	ㄱ·ㄷ·ㅂ·ㅅ·ㅈ → 된소리	국수 → [국쑤]	뒤가 비음이면 비음화를 확인	교체
용언 어간 ㄴ·ㅁ 뒤의 어미	ㄱ·ㄷ·ㅅ·ㅈ → 된소리	넘-+-다 → 넘다 → [넘따]	밤+도 → [밤도]: 명사+조사	교체
어간 ㄻ·ㄾ 뒤의 어미	ㄱ·ㄷ·ㅅ·ㅈ → 된소리	넓-+-지 → 넓지 → [널찌]	넓어 → [널버]: 모음 앞	교체
한자어 ㄹ 뒤	ㄷ·ㅅ·ㅈ → 된소리	발전 → [발쩐]	허허실실 → [허허실실]: 같은 한자 반복	교체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ㄱ·ㄷ·ㅂ·ㅅ·ㅈ → 된소리	할 사람 → [할싸람]	살고 → [살고]: -고가 붙은 활용	교체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넘다: 용언 어간 뒤 어미이므로 된소리	감기다 → [감기다]: 피동·사동 접미사 -기-에는 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예외·주의

합성어 성분 사이의 된소리되기는 사잇소리 현상(B12)과도 연결된다. 같은 받침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어미·접미사를 같게 처리하지 않는다.

---

051 고르기

‘학교 → [학꾜]’의 ㄱ→ㄲ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음운 수는 유지되며 교체가 일어난다.

② ㄱ이 두 개가 되어 음운 수가 한 개 늘어난다.

③ ㄲ은 새 자음 두 개가 첨가된 결과이다.

④ 앞 받침 ㄱ과 뒤 ㄱ이 합쳐져 ㄲ 하나가 된다.

⑤ ㄱ이 거센소리 ㄲ으로 바뀐다.

052 쓰기

기호	표기 → [발음]	형태 정보
가	신고 → [신꼬]	신- + -고: 신발을 신는 동사 어간+어미
나	산도 → [산도]	산 + 도: 명사+조사

가에는 된소리되기가 있고 나에는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필요한 조건 두 가지를 골라 기호로 쓰자.

〈보기〉

ㄱ	앞말의 받침만 같으면 뒤 자음은 언제나 된소리이다.
ㄴ	앞 요소가 용언 어간인지 확인한다.
ㄷ	뒤 요소가 어미인지 조사인지 확인한다.
ㄹ	두 단어의 글자 수가 같은지 확인한다.

답란

필요한 조건: 기호 두 개

053 고르기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갈등 → [갈뜽]’: 한자어
‘알고 → [알고]’: 어간 ‘알-’에 어미 ‘-고’가 붙음
‘갈 곳 → [갈꼳]’: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곳’이 옴

① ㄹ 뒤의 모든 자음은 된소리이다.

② 세 자료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전혀 없다.

③ ‘알고’도 반드시 [알꼬]라고 해야 한다.

④ 같은 ㄹ 뒤라도 한자어인지, 어간 말인지, 관형사형 어미 말인지 살펴야 한다.

⑤ ‘갈 곳’의 ㄱ은 자료에서 예사소리로 유지된다.

054 쓰기

다음 중 ‘어간의 ㄴ·ㅁ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만 모두 고르자.

기호	표기 → [발음]	형태 정보
가	안다 → [안따]	안- + -다: 팔로 껴안는 동사 어간+어미
나	봄도 → [봄도]	봄 + 도: 계절 명사+조사
다	담지 → [담찌]	담- + -지: 그릇에 담는 동사 어간+어미
라	문고리 → [문꼬리]	문 + 고리: 합성 명사

답란

조건에 맞는 기호 모두

055 고르기

“ㄹ 뒤의 ㄱ은 언제나 된소리로 바뀐다.”라는 설명을 반박하는 자료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제시된 발음만 이용한다.

① 갈 곳 → [갈꼳]

② 알고 → [알고]

③ 물고기 → [물꼬기]

④ 길가 → [길까]

⑤ 먹는 → [멍는]

B6 겹받침에서 사라지는 자음 찾기

요약집 문법02 ③·⑦·⑬

> **겹받침을 적었다고 언제나 하나를 지우지는 않는다.**

규칙 표

조건	남는 자음	예: 표기 → [발음]	유형
말끝·자음 앞: ㄳ·ㄺ	ㄱ	삯 → [삭]	탈락: 자음군 단순화
말끝·자음 앞: ㄵ	ㄴ	얹다 → [언따]	탈락: 자음군 단순화
말끝·자음 앞: ㄻ·ㄽ·ㄾ	ㄹ	짧다 → [짤따]	탈락: 자음군 단순화
말끝·자음 앞: ㄼ	ㅁ	굶다 → [굼따]	탈락: 자음군 단순화
말끝·자음 앞: ㅄ	ㅂ	없다 → [업따]	탈락: 자음군 단순화
말끝·자음 앞: ㅀ	ㅍ이 남은 뒤 ㅂ으로 발음	읊지 → [읍찌]	탈락 뒤 교체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짧다: ㅂ이 없어지고 ㄹ이 남음	짧아 → [짤바]: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므로 단순화 없음

예외·주의

밟-은 자음 앞에서 ㅂ이 남는다. 넓적하다 → [넙쩌카다]·넓죽하다 → [넙쭈카다]·넓둥글다 → [넙뚱글다]도 별도로 살핀다. 어간 ㄺ 뒤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에서는 ㄹ이 남는다(읽게 → [일께]). ㅀ·ㄾ의 ㅎ은 B7·B9에서 확인한다. 예의 전체 발음에 된소리되기 등 다른 변화가 함께 있더라도 위 표의 유형은 겹받침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변화를 가리킨다.

056 쓰기

말끝에서 ‘넋 → [넉]·삶 → [삼]·여덟 → [여덜]’을 발음한다. 각 겹받침에서 탈락한 자음을 차례로 쓰고 공통된 음운 변동 현상을 쓰자.

답란

넋: 없어진 자음	삶: 없어진 자음	여덟: 없어진 자음	공통 현상

057 고르기

‘넓다 → [널따]’와 ‘밟다 → [밥따]’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두 자료에서 모두 ㄹ이 탈락한다.

② 두 자료에서 모두 ㅂ이 탈락한다.

③ 두 자료의 ㄻ은 ㄸ 하나로 축약된다.

④ 같은 겹받침이므로 남는 자음도 반드시 같다.

⑤ 같은 ㄻ이라도 어간의 조건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다르다.

058 표 채우기

‘맑다 → [막따]·맑고 → [말꼬]·맑아 → [말가]’에서 겹받침 ㄺ의 상태를 표로 정리하자. ‘ㄹ이 발음되지 않음 / ㄱ이 발음되지 않음 / ㄹ·ㄱ 모두 발음됨’ 중 골라 쓰자.

답란

기호	자료: 표기 → [발음]	겹받침 상태
가	맑다 → [막따]	
나	맑고 → [말꼬]	
다	맑아 → [말가]	

059 고르기

‘읊다 → [읍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겹받침에서 ㄹ이 탈락한다.

② 겹받침에서 남은 ㅍ은 대표음 ㅂ으로 바뀐다.

③ ㄹ과 ㅍ이 합쳐져 ㅂ 하나가 되는 자음 축약이다.

④ 뒤 음절의 ㄷ이 ㄸ으로 바뀐다.

⑤ 음운 변동 유형으로 교체와 탈락이 있다.

060 고쳐 쓰기

다음 분석에서 틀린 문장 하나를 골라 바르게 고치자.

기호	자료·물음
가	‘값 → [갑]’의 ㅄ에서는 ㅅ이 탈락한다.
나	‘값이 → [갑씨]’에서도 ㅅ이 탈락하고, 그 대신 ㅆ이 새로 첨가된다.
다	‘값이 → [갑씨]’의 ㅆ은 하나의 자음이다.

답란

틀린 기호	바르게 고친 말

B7 자음 탈락의 환경과 표기 비교하기

요약집 문법02 ⑭·⑮

> **어떤 소리가 없어졌는지와 표기에도 반영되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규칙 표

조건	바뀌는 모습	예: 표기 → [발음]	유형
ㄹ 어간 + ㄴ·ㅂ·ㅅ으로 시작하는 특정 어미, -오 등	어간 ㄹ이 없어지고 결과 표기에도 반영	살-+-는 → 사는 → [사는]	탈락: ㄹ 탈락
ㅎ·ㄶ·ㅀ 어간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접미사	ㅎ이 발음되지 않지만 표기에는 남음	닳-+-아 → 닳아 → [다라]	탈락: ㅎ 탈락
ㄶ·ㅀ 어간 +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ㅎ이 없어진 뒤 다른 변동도 확인	끓-+-는 → 끓는 → [끌른]	ㅎ 탈락 뒤 유음화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사는: ㄹ 어간이 활용하며 ㄹ이 없어짐 → ㄹ 탈락	삵 → [삭]: 겹받침 ㄺ의 ㄹ이 없어짐 → 자음군 단순화

예외·주의

‘ㄹ이 없어짐’은 없어진 소리를 말하고, ‘ㄹ 탈락’은 특정 현상의 이름이다. 겹받침에서 같은 소리가 없어져도 현상의 이름은 구별한다.

061 쓰기

어간 ‘밀-’에 다음 어미가 붙을 때의 형태를 쓰자.

기호	결합	형태 정보
가	밀- + -는	어간+어미
나	밀- + -고	어간+어미
다	밀- + -니	어간+어미

결과 형태를 쓰고, 어간의 ㄹ이 없어졌으면 O, 남았으면 X로 표시하자.

답란

기호	결과 형태	ㄹ이 없어짐: O / X
가		
나		
다		

062 고르기

‘닭 → [닥]’과 ‘울- + -니 → 우니’에서 ㄹ이 없어지는 현상을 현상 이름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둘 다 ㄹ 탈락

② 둘 다 자음군 단순화

③ 닭: ㄹ 탈락 / 우니: 자음군 단순화

④ 닭: 자음군 단순화 / 우니: ㄹ 탈락

⑤ 닭: 축약 / 우니: 첨가

063 쓰기

‘많아 → [마나]’와 ‘싫어 → [시러]’에 대해 ㉠ 공통으로 탈락한 자음, ㉡ 각 겹받침에서 남아 뒤로 이어진 자음을 쓰자. 또 ㉢ 탈락한 자음이 표기에서도 없어졌는지 답하자.

답란

㉠ 공통으로 없어진 자음	㉡ 많아: 남은 자음	㉡ 싫어: 남은 자음	㉢ 표기에서도 없어졌는가

064 고르기

‘뚫는 → [뚤른]’을 ‘뚫는→뚤는→뚤른’으로 분석한다. 옳은 설명을 고르자.

먼저 단계 표를 채운 뒤 고르자.

답란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뚫는 → 뚤는			
2	뚤는 → [뚤른]			

① 첫 단계에서 ㄹ이 탈락한다.

② ㅎ 탈락 뒤에 남은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바뀐다.

③ 첫 단계에서 뒤의 ㄴ이 ㅎ을 ㄹ로 바꾼다.

④ 두 번째 단계에서는 ㄹ이 하나 첨가된다.

⑤ 두 단계는 모두 교체이다.

065 고르기

다음 두 자료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는 결론은?

‘갈- + -는 → 가는’: 갈다의 활용이다.
‘낳- + -아 → 낳아 → [나아]’: 낳다의 활용이다.

① 자음이 탈락하면 표기에서도 반드시 해당 자음을 지워야 한다.

② 두 자료에서 탈락한 자음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③ 두 자료 모두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

④ ‘낳아’의 표기에는 발음되지 않는 ㅎ이 남는다.

⑤ ‘가는’에서는 어간의 ㄹ이 결과 표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B8 모음의 변화에서 남은 소리 확인하기

> **음절이 줄었다고 모두 모음 축약은 아니다.**

규칙 표

조건	바뀌는 모습	예: 표기 → [발음]	유형·음운 수
ㅡ 어간과 모음 어미 결합	ㅡ+ㅏ/ㅓ → ㅏ/ㅓ	크-+-어 → 커 → [커]	ㅡ 탈락 · 1개 감소
같은 모음이 연속함	ㅏ+ㅏ→ㅏ / ㅓ+ㅓ→ㅓ	타-+-아서 → 타서 → [타서]	동일 모음 탈락 · 1개 감소
앞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뀜	단모음+단모음 → 반모음+단모음	보-+-아 → 봐 → [봐]: ㅗ+ㅏ →w+ㅏ	반모음화 · 교체 · 유지
다른 단모음 둘이 새 단모음 하나로 합쳐짐	ㅏ+ㅣ → ㅐ	사이 → 새 → [새]: 역사적으로 굳어진 준말	모음 축약 · 1개 감소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봐: ㅗ가 w로 바뀌고 ㅏ가 남음 → 교체	같은 두 ㅏ 중 하나가 없어지면 → 탈락

예외·주의

‘오+아→와’를 모음 축약으로 가르치는 교과서도 있다. 학교 시험은 학교 교과서의 분류를 따른다.
역사적으로 굳어진 모음 축약을 모든 모음 결합에 넓혀 적용하지 않는다.

066 쓰기

다음 결합에서 모음 부분의 변화와 결과 형태를 쓰자.

기호	결합	형태 정보
가	끄- + -어	어간+어미
나	잠그- + -아	어간+어미

답란

기호	모음 변화	결과 형태
가		
나		

067 고르기

‘서- + -어서 → 서서’를 모음 부분 ‘ㅓ + ㅓ → ㅓ’로 분석한다. 이 책의 분류에 맞는 설명은?

① 새 모음 ㅓ가 생긴 축약이다.

② ㅓ 하나가 반모음 j로 바뀐 교체이다.

③ 같은 모음 둘 중 하나가 없어진 탈락이다.

④ 반모음이 더해진 첨가이다.

⑤ 모음 두 개와 두 음절이 모두 그대로 남았다.

068 쓰기

‘쏘- + -아 → 쏴’의 모음 부분을 ‘ㅗ+ㅏ →w+ㅏ’로 분석한다. ㉠ 바뀐 소리, ㉡ 유지된 소리, ㉢ 모음 부분의 음운 수 전후, ㉣ 음운 변동 유형을 쓰자.

답란

㉠ 바뀐 소리	㉡ 유지된 소리	㉢ 모음 부분: 전 → 후	㉣ 유형

069 고르기

자료의 분석 기준에 맞게 세 음운 변동 유형을 연결한 것은?

기호	자료·물음
가	ㅏ + ㅏ → ㅏ : 같은 모음 중 하나가 없어짐
나	ㅏ + ㅣ → ㅐ : 서로 다른 두 모음이 새 모음 하나가 됨
다	ㅣ + ㅓ →j+ ㅓ : 앞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뀜

① 가 축약 / 나 탈락 / 다 교체
② 가 탈락 / 나 교체 / 다 축약
③ 가 교체 / 나 축약 / 다 탈락
④ 가 축약 / 나 축약 / 다 축약
⑤ 가 탈락 / 나 축약 / 다 교체

070 고쳐 쓰기

‘아이→애’는 모음 부분 ‘ㅏ + ㅣ → ㅐ’, ‘피어→펴’는 ‘ㅣ + ㅓ →j+ ㅓ’로 분석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하나를 고르고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자.

기호	자료·물음
가	두 자료 모두 음절 수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준다.
나	두 자료 모두 모음 부분의 음운 수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준다.
다	첫 자료는 축약, 둘째 자료는 교체로 분류한다.

답란

틀린 기호

그 이유: 한 문장

B9 ㅎ이 만나는 소리에 따라 분석하기

요약집 문법02 ④·⑮·⑱

> **ㅎ이 있다는 사실보다 무엇과 만나는지가 중요하다.**

규칙 표

ㅎ이 만나는 소리	결과	유형	예: 표기 → [발음]
모음: 어미·접미사	ㅎ이 없어짐	탈락	낳으면 → [나으면]
ㄱ·ㄷ·ㅈ	ㅋ·ㅌ·ㅊ으로 합쳐짐	축약	놓다 → [노타]
ㅅ	ㅅ이 ㅆ으로 발음됨(거센소리가 아님)	이 책에서는 유형을 묻지 않음	않소 → [안쏘]
ㄴ	홑받침 ㅎ은 ㄷ을 거쳐 ㄴ; ㄶ·ㅀ은 ㅎ 탈락 뒤 분석	교체 / 탈락 뒤 확인	놓는 → [논는] / 끊는 → [끈는]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놓다: ㅎ+ㄷ→ㅌ으로 합쳐짐 → 축약	놓아 → [노아]: ㅎ이 없어지고 모음은 남음 → 탈락

예외·주의

ㅎ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ㄱ·ㄷ·ㅂ·ㅈ과 합쳐지면 ㅋ·ㅌ·ㅍ·ㅊ이 된다. 겹받침이면 축약에 참여하지 않은 자음도 확인한다.

거센소리 대응: ㄱ·ㄷ·ㅂ·ㅈ + ㅎ ↔ ㅋ·ㅌ·ㅍ·ㅊ (ㅎ이 앞에 오는 경우도 포함)

071 쓰기

다음 발음에서 합쳐진 두 자음과 그 결과를 쓰자.

기호	표기 → [발음]
가	좋다 → [조타]
나	급하다 → [그파다]
다	국화 → [구콰]

답란

기호	자음 + 자음 → 결과 자음
가	
나	
다	

072 고르기

‘넣어 → [너어]’와 ‘넣지 → [너치]’에서 ㅎ의 처리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① 둘 다 ㅎ이 탈락하기만 한다.

② 넣어에서는 ㅎ 탈락, 넣지에서는 ㅎ+ㅈ→ㅊ의 축약이 일어난다.

③ 둘 다 ㅎ이 ㅊ으로 교체된다.

④ 넣어에서는 ㅎ이 그대로 연음된다.

⑤ 넣지에서는 ㅎ을 유지한 채 ㅊ이 첨가된다.

073 쓰기

‘많고 → [만코]’와 ‘옳지 → [올치]’에서 ㉠ 축약에 참여한 두 자음과 결과, ㉡ 원래 겹받침에서 그대로 남은 자음을 각각 쓰자.

답란

자료	㉠ 합쳐진 두 자음 → 결과	㉡ 그대로 남은 자음
많고		
옳지		

074 고르기

‘좋소 → [조쏘]’를 보고 “ㅎ 뒤의 자음은 무엇이든 거센소리가 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옳다. ㅆ은 ㅅ의 거센소리이다.

② 옳다. 모든 된소리는 거센소리와 같다.

③ 틀리다. ㅆ은 자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틀리다. 제시된 ㅆ은 된소리이며 거센소리되기의 네 쌍에 속하지 않는다.

⑤ 틀리다. ㅆ은 두 개의 ㅅ을 차례로 발음한 것이기 때문이다.

075 쓰기

두 분석에 대해 답하자.

기호	표기 → [발음]	제시된 분석
가	쌓아 → [싸아]	어간 끝 ㅎ이 없어짐
나	쌓고 → [싸코]	ㅎ+ㄱ이 ㅋ이 됨

㉠ 각 경우의 전체 음운 수는 원래 구성에 비해 몇 개 줄어드는가?
㉡ 두 경우를 각각 탈락·축약으로 구별하는 핵심 근거를 ‘남은 소리의 성격’을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쓰자.

답란

기호	㉠ 줄어든 음운 수
가	
나	

㉡ 탈락·축약을 구별하는 근거: 한 문장

B10 첨가된 소리가 다음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약집 문법02 ⑤·⑧·⑨·⑳

합성어·파생어 등의 구성 경계에서 없던 ㄴ이 생길 수 있다.

규칙 표

아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조건이 맞더라도 예외는 제시된 발음·사전 정보로 확인한다.

예: 구성 → 표기 → [발음]	앞 성분 끝이 자음	뒤 첫소리가 이·야·여·요·유	뒤가 실질 형태소 또는 해당 한자 접미사	ㄴ 첨가
논+일 → 논일 → [논닐]	○	○	○ 실질 형태소	○
식용+유 → 식용유 → [시굥뉴]	○	○	○ 해당 한자 접미사	○
논+이 → 논이 → [노니]	○	○	× 조사	×
휴대+-용 → 휴대용 → [휴대용]	× 모음으로 끝남	○	○ 해당 한자 접미사	×

ㄴ 첨가 뒤에는 어떤 변화가 이어지는가?

ㄴ 첨가
뒤 첫소리 자리에 ㄴ이 생김

앞이 ㄱ·ㄷ·ㅂ
비음화
앞 ㄱ·ㄷ·ㅂ → ㅇ·ㄴ·ㅁ
영업용 → 영업뇽 → [영엄뇽]

앞이 ㄹ
유음화
첨가된 ㄴ → ㄹ
불여우 → 불녀우 → [불려우]

추가된 ㄴ이 뒤 변화를 설명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첨가 뒤의 두 갈래

먼저 일어난 현상	새 조건	이어서 확인할 현상	예: 표기 → [발음]
ㄴ 첨가	앞이 ㄱ·ㄷ·ㅂ: ㄴ이 비음 조건을 만듦	ㄴ 첨가 → 비음화	영업용 → 영업뇽 → [영엄뇽]
ㄴ 첨가	앞이 ㄹ: 앞 ㄹ이 첨가된 ㄴ에 영향	ㄴ 첨가 → 유음화	불여우 → 불녀우 → [불려우]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논일: 뒤가 실질 형태소여서 ㄴ 첨가	논이 → [노니]: 뒤가 조사이므로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예외·주의

조건이 겉으로 비슷해도 ㄴ 첨가를 적용하지 않는 말이나 두 발음을 허용하는 말이 있다. 한자 접미사 전체에 무조건 적용하지 말고 제시된 발음·사전 정보를 확인한다.

---

076 쓰기

‘맨- + 입 → 맨입 → [맨닙]’에서 원래 두 성분에 없던 자음과 새로 놓인 자리를 쓰자.

답란

더해진 자음	새로 놓인 자리

---

077 고르기

‘막일 → [망닐]’의 관련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ㄱ이 ㄴ으로 교체되었을 뿐 새 자음은 없다.

② 뒤에 비음이 없는데 먼저 ㄱ이 ㅇ으로 비음화되었다고만 설명하면 충분하다.

③ ㅇ과 ㄴ이 모두 새로 첨가된다.

④ ㄱ과 첨가된 ㄴ이 합쳐져 ㅇ 하나가 된다.

⑤ ㄴ 첨가가 ㄱ의 비음화 조건을 만든다.

078 표 채우기

‘서울역 → [서울력]’의 구성 경계에 ㄴ 첨가와 유음화가 일어난다고 분석한다. 중간형의 경계 부분을 쓰고, 최종 발음의 ㄹ을 ‘ㄹ 첨가’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자.

단계 표에는 바뀐 소리·현상·유형을 쓰자.

답란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서울+역 → _____			
2	_____ → [서울력]			

최종 ㄹ을 ㄹ 첨가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079 고르기

‘밤이 → [바미]’에서 ‘이’는 조사이고, ‘밤일 → [밤닐]’에서 ‘일’은 일을 뜻하는 실질 형태소이다. 두 자료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뒤에 ‘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두 자료에 모두 ㄴ을 더할 수 없다.

② 두 자료 모두 ㄴ을 더해야 한다.

③ 두 자료 모두 ㄴ 첨가가 전혀 없다.

④ 밤이에서는 ㅁ이 탈락하여 [바이]가 된다.

⑤ 첨가된 소리는 반드시 표기에도 적혀 있어야 한다.

080 O·X

다음은 발음 정보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판단을 O/X로 표시하자.

금융: [금늉], [그뮹]을 모두 인정
송별연: [송벼련]을 인정하고 [송별련]은 인정하지 않음

기호	자료·물음
가	금융에는 ㄴ이 첨가된 발음과 첨가되지 않은 발음이 모두 있다.
나	송별연도 앞 성분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여'가 있으므로 ㄴ 첨가를 반드시 적용한다.
다	ㄴ 첨가는 겉으로 조건이 비슷한 모든 말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답란

기호	O / X
가	
나	
다	

B11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화 구별하기

요약집 문법02 ⑤·⑫·㉑

> **기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는지, 기존 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더해졌는지를 구별한다.**

규칙 표

조건	바뀌는 모습	예: 표기 → [발음]	유형
앞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뀜	ㅣ + ㅓ → j+ㅓ;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 수 있음	누비어 → 누벼 → [누벼]	교체: 반모음화
기존 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더해짐	ㅟ+ㅓ → ㅟ+j+ㅓ; 두 음절 유지	뛰어 → [뛰여] (허용 발음)	첨가: 반모음 첨가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누벼: 해당 ㅣ가 j로 바뀜	뛰여: 원래 ㅟ가 남고 j가 더해짐

예외·주의

ㅣ·ㅚ·ㅟ로 끝나는 용언 어간 + -어에서는 j를 첨가한 발음을 허용한다. 이 허용을 ㅐ·ㅔ 등 모든 모음으로 넓히지 않는다. 용언 활용형의 져·쪄·쳐는 [저·쩌·처]이므로 반모음이 남는 예로 쓰지 않는다.

---

081 쓰기

동사 '기다'의 활용형 '기어'를 [기여]로 발음하는 경우를 'ㅣ + ㅓ → ㅣ +j+ ㅓ'로 분석한다. ㉠ 더해진 음운, ㉡ 기존 ㅣ의 유지 여부, ㉢ 모음 부분의 음운 수 전후를 쓰자.

답란

㉠ 더해진 음운	㉡ ㅣ 유지 여부	㉢ 모음 부분: 전 → 후

---

082 고르기

두 자료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호	표기 → [발음]	형태 정보	모음 분석
가	이겨 → [이겨]	이기- + -어	ㅣ + ㅓ →j+ ㅓ
나	피어 → [피여]	피- + -어	ㅣ + ㅓ → ㅣ +j+ ㅓ

① 둘 다 음운 수가 늘어나는 첨가이다.

② 둘 다 음운 수가 줄어드는 축약이다.

③ 가에서는 앞 단모음이 바뀌고, 나에서는 기존 두 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더해진다.

④ 가에서는 ㅣ가 그대로 남아 별도 음절을 이룬다.

⑤ 나에서는 ㅣ가 없어지고 j만 남는다.

083 쓰기

다음 조건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허용되는 반모음 첨가 발음만 고르자.

[조건] 용언 어간이 'ㅣ·ㅚ·ㅟ'로 끝나고 뒤에 어미 '-어'가 올 때 j가 첨가된 발음을 허용한다. 'ㅐ·ㅔ'로 끝나는 어간에는 이 허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호	표기 → [발음]	형태 정보
가	피어 → [피여]	피- + -어
나	되어 → [되여]	되- + -어
다	세어 → [세여]	세- + -어
라	패어 → [패여]	패- + -어

답란

허용되는 발음의 기호 모두

084 고르기

'되어 → [되여]'를 'ㅚ+ㅓ → ㅚ+j+ㅓ'로 분석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발음은 '되/여'의 두 음절이다.

② 음절 수가 같으므로 모음 부분의 음운 수도 같다.

③ 원래의 ㅚ는 그대로 남는다.

④ 이 변화는 첨가로 분류한다.

⑤ 새 j는 뒤 단모음 ㅓ와 결합한다.

085 고쳐 쓰기

‘피어 → [피어]’가 원칙이고 [피여]도 허용된다는 정보를 읽었다. 다음 두 기록을 O/X로 표시하고, X인 기록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

기호	자료·물음
가	“피어는 반드시 [피여]로만 발음해야 한다.”
나	“[피여]에서 반모음 첨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피어]도 인정된다는 사실과 함께 성립한다.”

답란

기호	O / X	X이면 바르게 고친 말
가		
나		

B12 사잇소리의 분석 출발점 정하기

요약집 문법02 ⑪·⑳·㉒

사잇소리 현상은 소리의 문제이고, 사이시옷은 표기의 문제이다.

나뭇잎: 무엇에서 출발하여 비교하는가?

합성 전 두 성분	사이시옷이 적힌 표기
나무 + 잎	나뭇잎
↓	↓
경계에 없던 ㄴ 두 개가 더해짐 끝 받침 ㅍ → ㅂ은 따로 확인	뒤 첫소리에 ㄴ이 더해짐 사이시옷 ㅅ → ㄷ → ㄴ 끝 받침 ㅍ → ㅂ은 따로 확인
[나문닙]	[나문닙]

출발점이 달라도 두 설명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문제에서 지정한 출발점과 최종 발음을 비교한다.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눈동자 → [눈똥자]: 사이시옷을 적지 않은 사잇소리의 된소리 예	사이시옷 표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예외·주의

출발점이 다르면 같은 최종 발음의 설명도 달라질 수 있다. 사잇소리는 된소리되기나 ㄴ·ㄴㄴ 첨가로 나타나며, 문제에서 지정한 출발점·발음을 따른다.

---

086 쓰기

합성 전 두 성분과 제시된 합성어 발음을 비교한다. 두 성분 사이의 변화를 쓰자.

기호	합성 전 성분	표기 → [발음]
가	배 + 사공	뱃사공 → [배싸공]
나	이 + 몸	잇몸 → [인몸]

답란

기호	바뀌거나 더해진 자음	유형
가		
나		

---

087 고르기

‘대 + 잎 → 댓잎 → [댄닙]’을 합성 전의 두 성분에서 출발하여 분석한다. 끝소리 ㅍ→ㅂ은 별도로 둔다. 두 성분 사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ㄴ이 하나 더해진다.

② ㄹ이 두 개 더해진다.

③ 원래 두 성분 사이에 있던 ㅅ이 ㄴ으로 바뀐다.

④ ㄴ이 두 개 더해진다.

⑤ ㄴㄴ은 한 개의 된소리이므로 음운 하나이다.

088 쓰기

이번에는 합성어 표기 ‘깻잎’에서 출발한다. 다음 설명의 빈칸을 채우자.

‘잎’의 첫소리 자리에 (가)이 첨가된다.
사이시옷 ㅅ은 대표음 (나)으로 바뀐 뒤, 첨가된 비음의 영향으로 (다)이 된다.
마지막 받침 ㅍ은 대표음 (라)으로 바뀐다.

(가)~(라)는 자음 기호로 쓴다.

답란

기호	자음
가	
나	
다	
라	

089 고르기

‘산 + 길 → 산길 → [산낄]’에는 사이시옷이 적혀 있지 않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이시옷 표기 없이도 된소리되기라는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② 사이시옷이 없으므로 사잇소리 현상도 없다.

③ ㄲ은 ㄱ 두 개가 새로 첨가된 것이다.

④ 표기에 ㄲ이 없으므로 [산낄]이라는 발음은 제시될 수 없다.

⑤ 산의 ㄴ이 이때 새로 첨가된다.

090 O·X

‘나뭇가지’는 [나무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나묻까지]도 허용한다. 이 정보에 맞으면 O, 맞지 않으면 X로 표시하자.

기호	자료·물음
가	두 발음 모두 ‘가지’의 ㄱ이 ㄲ으로 난다.
나	사이시옷을 적었으므로 어느 발음이든 반드시 [ㅅ] 소리를 내야 한다.
다	[나묻까지]에는 [나무까지]에 없는 받침 소리 ㄷ이 나타난다.

답란

기호	O / X
가	
나	
다	

B13 여러 변동의 순서와 개수 정리하기

요약집 문법02 ①~㉒ 종합

> **여러 변동을 분석할 때는 앞 변화가 뒤 변화의 조건을 만드는지 본다.**

규칙 표

단계	확인할 것
1단계 조건 보기	받침은? 뒤에 오는 소리는? 뒤에 붙는 말의 성격은?
2단계 소리 맞대기	표기의 음운과 발음의 음운을 칸칸이 맞댄다.
3단계 현상 이름	비음화·자음군 단순화처럼 실제로 일어난 현상을 쓴다.
4단계 유형·횟수·음운 수	교체·탈락·첨가·축약, 적용 횟수, 음운 수의 전후를 구별한다.

셀 대상	뜻	예: 표기 → [발음]
유형	교체·탈락·첨가·축약 중 일어난 것	국밥 → [국빱]: 교체
현상	실제로 적용된 규칙 이름	국밥 → [국빱]: 된소리되기
횟수	지정한 분석에서 변화가 적용된 횟수	국밥: ㄱ→ㄲ 한 번
음운 수	변동 전과 발음에 있는 음운의 수	ㄱ 하나가 ㄲ 하나로 바뀌므로 유지

헷갈리는 짝

◯ 조건에 맞음	× 이와 같게 판단하지 않음
앞 변화가 조건을 만들면 선후를 확인	다른 자리의 독립된 변화까지 반드시 한 순서로 고정하지 않음

예외·주의

유형 수·현상 수·적용 횟수·음운 수의 차이는 서로 다른 값이다. 중간 단계는 실제로 끊어 읽으라는 표시가 아니다.

---

091 표 채우기

‘흙만 → [흥만]’을 ‘흙만→흑만→흥만’으로 분석한다. 각 단계의 음운 변동 현상과 유형을 쓰자.

단계 표에는 바뀐 소리·현상·유형을 쓰자.

답란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흙만 → 흑만			
2	흑만 → [흥만]			

092 고르기

‘꽃망울 → [꼰망울]’의 첫 받침을 ‘ㅊ→ㄷ→ㄴ’으로 분석한다. 이 부분만 셀 때 유형 수와 교체 적용 횟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먼저 단계 표를 채운 뒤 고르자.

답란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첫 받침 ㅊ → ㄷ			
2	그 ㄷ → ㄴ			

① 유형 2 / 교체 2회

② 유형 1 / 교체 1회

③ 유형 1 / 교체 2회

④ 유형 2 / 교체 1회

⑤ 유형 3 / 교체 3회

093 표 채우기

‘색연필 → [생년필]’의 경계를 다음처럼 기록했다.

“ㄱ이 ㅇ으로 비음화된다. 뒤에 비음이 있기 때문이다.”

표기 ‘색+연필’과 비교하면 위 설명에는 비음이 생기는 과정이 빠져 있다. 아래 단계 표를 완성하자.

답란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색+연필 → _____			
2	_____ → [생년필]			

094 고르기

‘꽃잎 → [꼰닙]’에서 다음 네 변화를 분석한다.

기호	자료·물음
A	두 성분 사이에 ㄴ 첨가
B	첫 성분의 끝소리 ㅊ→ㄷ
C	그 ㄷ이 ㄴ 앞에서 ㄴ으로 비음화
D	마지막 받침 ㅍ→ㅂ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선후 관계만 말한 것은?

먼저 단계 표를 채운 뒤 고르자.

답란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A	A: 꽃+잎 → 꽃닢			
B	B: 첫 받침 ㅊ → ㄷ			
C	C: 그 ㄷ → ㄴ			
D	D: 마지막 받침 ㅍ → ㅂ			

> 행의 배치 순서가 곧 유일한 발음 변화 순서라는 뜻은 아니다.

① C는 A보다 먼저여야 한다.

② C는 B보다 먼저여야 한다.

③ D가 A를 만들어 내므로 D 다음에는 반드시 A가 온다.

④ 가능한 분석 순서는 A→B→C→D 하나뿐이다.

⑤ A와 B는 C에 앞서 확인해야 하며, D의 위치까지 하나로 고정할 필요는 없다.

095 표 채우기

‘삯일 → [상닐]’을 다음처럼 분석한다.

삯+일에 ㄴ을 첨가한다.
ㄻ에서 ㅅ을 탈락시킨다.
남은 ㄱ을 ㄴ 앞에서 ㅇ으로 바꾼다.

㉠ 일어난 음운 변동 유형을 모두 쓰자.
㉡ 변동 전 구성 ‘ㅅ·ㅏ·ㄱ·ㅅ·ㅣ·ㄹ’과 최종 발음 ‘ㅅ·ㅏ·ㅇ·ㄴ·ㅣ·ㄹ’의 음운 수를 각각 쓰자.
㉢ ‘음운 수가 같으므로 첨가는 없었다’는 판단을 O/X로 표시하자.

음운 맞대기 자료

비교	1	2	3	4	5	6	7
변동 전	ㅅ	ㅏ	ㄱ	ㅅ	ㅡ	ㅣ	ㄹ
발음	ㅅ	ㅏ	ㅇ	ㅡ	ㄴ	ㅣ	ㄹ

> ㅡ는 대응하는 소리가 없는 자리이며, 음운으로 세지 않는다.

단계 표에는 바뀐 소리·현상·유형을 쓰자.

답란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삯+일 → 삯닐			
2	삯닐 → 삭닐			
3	삭닐 → [상닐]			

㉠ 일어난 유형 모두	㉡ 변동 전 음운 수	㉡ 발음의 음운 수	㉢ O / X

C 종합 적용

각 문항에 주어진 자료와 분석 기준을 적용한다. 앞 문항의 결론을 전제로 삼지 않으며, 한 문항 안에서 필요한 근거를 확인한다.

■ **분석 4단계**

단계	확인할 것
1단계 조건 보기	받침은? 뒤에 오는 소리는? 뒤에 붙는 말의 성격은?
2단계 소리 맞대기	표기의 음운과 발음의 음운을 칸칸이 맞댄다.
3단계 현상 이름	비음화·자음군 단순화처럼 실제로 일어난 현상을 쓴다.
4단계 유형·횟수·음운 수	교체·탈락·첨가·축약, 적용 횟수, 음운 수의 전후를 구별한다.

C1 자료의 분류 기준 검증하기

요약집 문법01·문법02 종합

096 고르기

다음은 소리 카드의 분류 기록이다. 옳은 기록만 모두 고른 것은?

기호	소리	기록
가	ㅉ	센입천장소리·파찰음·된소리
나	ㅁ	입술소리·파열음·울림소리
다	ㅟ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 전설·원순·고모음
라	ㄸ	잇몸소리·파열음·거센소리

① 가·다　② 가·나　③ 나·라　④ 가·다·라　⑤ 가·나·다

097 쓰기

다음 자료만으로 판단하자.

낱말	뜻	말끝 발음	조사 '이' 결합 발음
낫	풀을 베는 도구	[낟]	[나시]
낮	해가 떠 있는 때	[낟]	[나지]

기호	자료·물음
가	말끝의 두 발음만 비교하면 자음의 대립을 실제 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나	조사 결합 발음에서는 어느 두 자음이 같은 자리에서 구별되는가?
다	두 낱말을 말끝 발음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뜻의 낱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답란

기호	답
가	
나	
다	

098 고르기

다음 변화의 조음 성질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기호	표기 → [발음]	분석할 변화	형태 정보
가	닫는 → [단는]	ㄷ→ㄴ	닫- + -는
나	붙이다 → [부치다]	ㅌ→ㅊ	붙- + 접미사 -이- + -다

① 가는 조음 위치만, 나는 조음 방법만 달라진다.

② 가는 위치와 방법이 모두 유지되고, 나는 위치만 달라진다.

③ 가는 탈락이므로 자음 수가 줄고, 나는 첨가이므로 자음 수가 는다.

④ 가는 조음 방법만 달라지고, 나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달라진다.

⑤ 가와 나의 결과 자음은 모두 된소리이다.

099 표 채우기

10단모음 표에서 두 이동을 비교하여 아래 표를 채우자.

이동	출발 → 결과
A	ㅖ → ㅚ
B	ㅡ → ㅜ

㉠ 각 이동에서 달라지는 분류 기준과 방향을 쓰자.
㉡ 두 출발 모음을 혀의 앞뒤 위치·높이·입술 모양으로 각각 분류하자.
㉢ A와 B의 출발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와 높이가 서로 같은가? 예/아니요로 답하자.

답란

㉠ 이동	바뀐 기준	방향
A		
B		

㉡ 출발 모음	혀의 앞뒤	혀의 높이	입술 모양
ㅖ			
ㅡ			

㉢ 예 / 아니요

100 고르기

다음 두 규칙에 맞는 결과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규칙 A: 자음 ㅈ에서 위치와 방법을 유지하고, 세기만 거센소리로 바꾼다.
규칙 B: 단모음 ㅜ에서 높이와 입술 모양을 유지하고, 혀의 앞뒤 위치만 전설로 바꾼다.

B는 10단모음 체계로 판단한다.

① A ㅉ / B ㅟ ② A ㅊ / B ㅣ ③ A ㅊ / B ㅟ ④ A ㅌ / B ㅚ ⑤ A ㅋ / B ㅖ

C2 같은 표기를 다른 환경에서 분석하기

요약집 문법01·문법02 종합

101 고르기

‘숯’의 발음을 세 환경에서 비교한다.

자료	발음
가. 숯+을(조사)	[수츨]
나. 숯+만(조사)	[순만]
다. 숯+과(조사)	[숟꽈]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르자.

① 가에서는 원래 받침 ㅊ이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진다.

② 나에서는 첫 받침을 ㅊ→ㄷ→ㄴ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③ 다에서는 뒤 음절 첫소리도 변한다.

④ 똑같이 조사가 붙더라도 조사의 첫소리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다.

⑤ 다에서는 ㄲ을 두 음운으로 세므로 음운 수가 하나 늘어난다.

102 쓰기

‘흙이 → [흘기]’와 ‘흙 앞에 → [흐가페]’를 비교한다. 두 번째는 한 마디로 이어 발음한 것이다.

기호	자료·물음
가	‘흙이’의 ㄹ·ㄱ은 각각 어디에서 발음되는가?
나	‘흙 앞에’의 ㄺ에서는 어떤 자음이 없어지는가?
다	“뒤에 모음이 있으므로 ㄺ의 두 자음은 언제나 모두 유지된다.”라는 설명이 틀린 이유를 뒤 형태소의 성격을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쓰자.

답란

기호	답·이유
가: ㄹ의 자리 / ㄱ의 자리	
나: 없어진 자음	
다: 형태소 성격을 포함한 이유	
다: 이어 쓰기	

103 고르기

다음 세 발음을 보고 옳은 기록만 모두 고른 것은?

‘앉다 → [안따]’
‘앉아 → [안자]’
‘앉는 → [안는]’

〈보기〉

ㄱ	앉다와 앉는에서는 겹받침의 ㅈ이 탈락한다.
ㄴ	앉아에서는 ㄴ과 ㅈ이 모두 발음된다.
ㄷ	앉다의 ㄸ은 ㄷ 두 개로 세므로 첨가이다.
ㄹ	앉는에서는 원래 있던 두 ㄴ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탈락한다.

① ㄱ ② ㄱ·ㄴ ③ ㄴ·ㄷ ④ ㄱ·ㄴ·ㄹ ⑤ ㄱ·ㄴ·ㄷ·ㄹ

104 쓰기

‘핥다 → [할따]’와 ‘핥아 → [할타]’를 분석한다.

기호	자료·물음
가	핥다의 겹받침에서 없어진 자음과 뒤 첫소리의 변화를 각각 쓰자.
나	핥아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있는가? ㄹ·ㅌ의 실제 발음 여부를 근거로 답하자.
다	핥다와 핥아 가운데, 교체·탈락·첨가·축약 중 하나라도 일어난 쪽을 고르자.

답란

기호	답·근거
가: 없어진 자음 / 뒤 첫소리 변화	
나: 자음군 단순화 여부 / 근거	
다: 변동이 있는 쪽	

105 쓰기

다음 발음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 유형이 서로 같은 두 자료를 고르자. 연음은 음운 변동 유형에 넣지 않는다.

기호	표기 → [발음]	형태 정보
가	젊다 → [점따]	젊- + -다
나	넣고 → [너코]	넣- + -고
다	값만 → [감만]	값 + 조사 만
라	돌을 → [도를]	돌 + 조사 을

답란

유형이 같은 두 자료: 기호

C3 형태소 경계와 예외 판단하기

요약집 문법01·문법02 종합

106 고르기

다음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료	뒤 요소의 성격	발음
굳이	굳- + 접미사 -이	[구지]
솜이	솜 + 조사 이	[소미]
솜이불	솜 + 실질 형태소 이불	[솜니불]

① 뒤에 ‘이’가 보이더라도 앞 자음과 형태소의 성격에 따라 분석이 달라진다.

② 세 자료에는 모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③ 세 자료에는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난다.

④ 모음 앞이므로 세 자료 모두 음운 변동 없이 연음만 일어난다.

⑤ 접미사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므로 굳이의 분석은 불가능하다.

107 쓰기

모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자료	분석
가. ‘오- + -아서 → 와서’	ㅗ+ㅏ→w+ㅏ
나. ‘가- + -아서 → 가서’	ㅏ+ㅏ→ㅏ
다. ‘뜨- + -어서 → 떠서’	ㅡ+ㅓ→ㅓ

㉠ 각 자료의 음운 변동 현상을 쓰자.
㉡ 음절 수는 줄지만 음운 수는 유지되는 자료를 고르자.
㉢ “음절이 줄어든 세 자료는 모두 축약이다.”를 O/X로 판단하자.

답란

기호	㉠ 현상
가	
나	
다	

㉡ 음운 수 유지 자료	㉢ O / X

108 고르기

10단모음 표에서는 ㅏ가 후설·평순·저모음이고 ㅐ가 전설·평순·저모음이다. 이를 보고 다음 주장을 했다.

“분류표에서 ㅏ와 ㅐ는 혀의 앞뒤만 다르므로, 모든 ‘ㅏ’는 뒤에 ‘ㅣ’가 오면 표준 발음에서 반드시 ‘ㅐ’로 바뀐다.”

가장 적절한 평가를 고르자.

① 옳다. 분류상 인접한 모음은 언제나 서로 교체된다.
② 옳다. 단모음 표는 모든 발음 변화의 필수 적용 순서를 나타낸다.
③ 틀리다. ㅏ와 ㅐ는 높이도 반드시 다르기 때문이다.
④ 틀리다. 모음의 분류상 차이만으로 모든 낱말에 적용되는 표준 발음 규칙을 이끌어 낼 수 없다.
⑤ 틀리다. ㅐ는 원순 모음이기 때문이다.

109 쓰기

“비음 ㄴ 뒤의 ㄱ은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바뀐다.”라는 가설을 검토한다. 가장 직접적인 반례를 고르자.

기호	구성	발음
가	신- + -고: 신발을 신다	신고 → [신꼬]
나	안- + -기- + -다: 품에 안기다	안기다 → [안기다]
다	손 + 등: 합성 명사	손등 → [손뜽]
라	국 + 밥: 합성 명사	국밥 → [국빱]

답란

반례의 기호

110 고르기

다음 자료만을 근거로 옳은 결론을 고르자.

‘한여름 → [한녀름]’에는 ㄴ 첨가가 있다.

‘송별연 → [송벼련]’에는 ㄴ 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되어’는 [되어]를 원칙으로 하되 [되여]도 허용한다.

‘세어’를 [세여]로 발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①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요소 앞에서는 언제나 ㄴ이 첨가된다.

② 첨가 현상마다 조건과 허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③ 한 자료에서 j 첨가가 허용되면 모든 모음 뒤에서도 허용된다.

④ [되여]가 허용되므로 [되어]는 비표준 발음이다.

⑤ ㄴ 첨가와 반모음 첨가는 추가되는 소리가 같은 현상이다.

111 표 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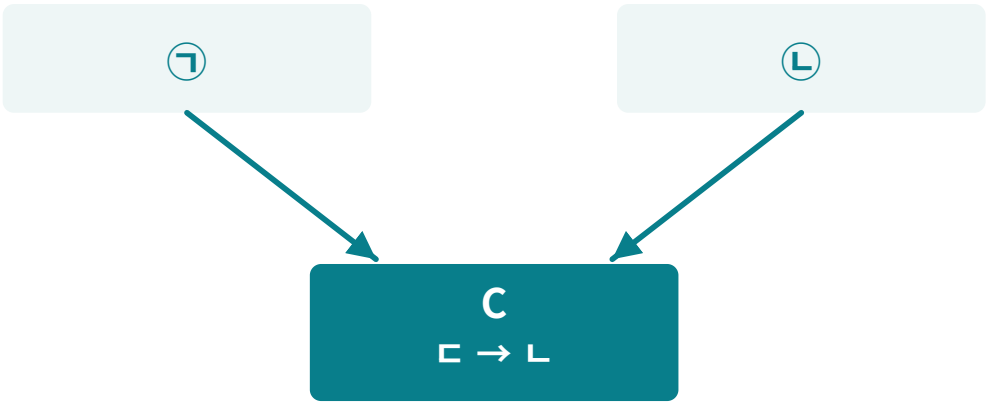
‘홑이불 → [혼니불]’의 경계 부분을 다음 세 변화로 분석한다.

〈보기〉

A	이불 앞에 ㄴ이 첨가된다.
B	홑의 받침 ㅌ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다.
C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뀐다.

아래 그림은 C에 필요한 두 조건을 만드는 변화가 C보다 앞선다는 뜻이다. ㉠·㉡에는 A·B·C 중 필요한 기호를, ㉢에는 ㉠·㉡ 사이의 선후 관계를 ‘하나로 정할 수 있음 / 하나로 정할 수 없음’ 중에서 골라 쓰자.

홑이불: C에 필요한 두 변화는?



화살표는 C에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 변화가 앞선다는 뜻이다.

단계 표에는 바뀐 소리·현상·유형을 쓰자.

답란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A	A: 홑+이불 → 홑니불			
B	B: 첫 받침 ㅌ → ㄷ			
C	C: 그 ㄷ → ㄴ			

> 행의 배치 순서가 곧 유일한 발음 변화 순서라는 뜻은 아니다.

㉠	㉡	㉢ A·B 사이의 순서

112 고르기

‘물약 → [물략]’의 자음 변화와 모음 구성을 함께 분석한다.

〈보기〉

ㄱ	경계에 ㄴ이 첨가된 뒤 앞 ㄹ의 영향으로 ㄹ이 된다.
ㄴ	‘약’의 받침 ㄱ은 발음에서도 그대로 ㄱ이므로, 이 받침에는 음운 변동이 없다.
ㄷ	ㅑ가 두 음운이므로 ‘약’은 반드시 두 음절이다.
ㄹ	음운 변동 유형으로 첨가와 교체가 있다.

옳은 기록만 모두 고른 것은?

① ㄱ·ㄷ ② ㄴ·ㄹ ③ ㄱ·ㄴ ④ ㄱ·ㄷ·ㄹ ⑤ ㄱ·ㄴ·ㄹ

113 표 채우기

‘읊고 → [읍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겹받침 ㅶ에서 ㄹ이 없어진다.
남은 ㅍ이 음절 끝에서 ㅂ으로 바뀐다.
뒤 첫소리 ㄱ이 ㄲ으로 바뀐다.

기호	자료·물음
가	음운 변동 유형을 모두 쓰자.
나	위 분석에서 교체는 몇 번 적용되는가?
다	변동 전 구성 ‘ㅡ·ㄹ·ㅍ·ㄱ·ㅗ’와 최종 발음 ‘ㅡ·ㅂ·ㄲ·ㅗ’의 음운 수 차이를 쓰자.
라	“음운 변동 현상이 세 가지이므로 음운 수도 세 개 줄었다.”를 O/X로 판단하자.

음운 맞대기 자료

비교	1	2	3	4	5
변동 전	ㅡ	ㄹ	ㅍ	ㄱ	ㅗ
발음	ㅡ	ㅡ	ㅂ	ㄲ	ㅗ

> ㅡ는 대응하는 소리가 없는 자리이며, 음운으로 세지 않는다.

단계 표에는 바뀐 소리·현상·유형을 쓰자.

답란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읊고 → 읖고			
2	읖고 → 읍고			
3	읍고 → [읍꼬]			

가: 유형 모두	나: 교체 횟수	다: 음운 수 차이	라: O / X

114 고르기

‘굳히다 → [구치다]’에 대한 분석 기록을 검토한다.

기호	자료·물음
A	ㄷ과 ㅎ이 합쳐져 ㅌ이 된다.
B	접미사 ‘-히-’의 ㅣ 앞에서 ㅌ이 ㅊ으로 바뀐다.
C	ㄷ이 뒤로 연음되었으므로 축약도 교체도 없다.

옳은 평가를 고르자.

먼저 단계 표를 채운 뒤 고르자.

답란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굳히다 → 구티다			
2	구티다 → [구치다]			

① A만 옳다.

② B만 옳다.

③ A·B는 옳고 C는 틀리다.

④ C만 옳다.

⑤ A·B·C가 모두 옳다.

115 쓰기

어떤 자료의 변동 전후 음운 수가 모두 여섯 개였다. 아래 후보에서 각 변화는 지정된 횟수만 일어나며 다른 변화는 없다. 오른쪽 예는 같은 조합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다.

기호	가능한 분석 후보	같은 변동 조합을 보여 주는 예
가	교체 2회	꽃망울 → [꼰망울]: ㅊ→ㄷ→ㄴ
나	첨가 1회 + 탈락 1회 + 교체 1회	삯일 → [상닐]: ㄴ 첨가, ㅅ이 없어짐, ㄱ→ㅇ
다	축약 1회	입학 → [이팍]: ㅂ+ㅎ→ㅍ
라	첨가 1회 + 축약 1회	(한 낱말 예 없음: 첨가 +1, 축약 −1로 계산)

‘전체 음운 수 유지’와 함께 성립하는 후보를 모두 고르고, 그 정보만으로 실제 후보 하나를 확정할 수 있는지도 답하자.

답란

함께 성립하는 후보 모두	실제 후보 하나를 확정할 수 있는가

116 고르기

다음 두 기록은 ‘뒷일 → [뒨닐]’을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분석했다.

기호	자료·물음
A	합성 전 ‘뒤+일’과 [뒨닐]을 비교하면, 두 성분 사이에 ㄴ 두 개가 더해졌다.
B	표기 ‘뒷일’에서 시작하면 뒤 성분 앞의 ㄴ 첨가와 사이시옷 ㅅ→ㄷ→ㄴ을 구별할 수 있다.

적절한 평가를 고르자. ㅟ의 단모음·이중 모음 허용 차이는 이 문항에서 다루지 않는다.

① A만 옳고 B는 반드시 틀리다.

② B만 옳고 A는 반드시 틀리다.

③ 두 기록 모두 사이시옷을 [ㅅ]으로 발음하지 않아 틀리다.

④ 분석 출발점이 다르므로 두 기록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⑤ 최종 발음이 같으므로 두 기록의 출발점도 완전히 같다.

117 고쳐 쓰기

아래 기록에서 틀린 문장 두 개를 골라 고치자.

기호	판단 문장
가	빵 → [빵]의 음운은 ㅃ·ㅏ·ㅇ으로 세 개이다.
나	ㅃ은 모양에 ㅂ이 두 번 있으므로 두 음운이다.
다	주- + -어 → 줘를 ㅜ+ㅕ→w+ㅕ로 분석하면 모음 부분의 음운 수는 두 개로 유지된다.
라	줘의 모음 부분에 두 음운이 있으므로 줘는 두 음절이다.

답란

틀린 기호	바르게 고친 말

118 쓰기

다음 두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례를 각각 고르자.

주장 A. “겹받침은 어떤 환경에서든 반드시 자음 하나가 탈락한다.”
주장 B. “발음에서 자음이 탈락하면 표기에서도 그 자음이 반드시 없어진다.”

자료	구성과 발음
가	‘닭을 → [달글]’: ㄹ과 ㄱ이 모두 발음됨
나	‘놀- + -는 → 노는 → [노는]’: ㄹ이 결과 표기에도 남지 않음
다	‘좋은 → [조은]’: 표기는 ‘좋은’으로 유지
라	‘국물 → [궁물]’: ㄱ이 ㅇ으로 바뀜

답란

주장 A의 반례	주장 B의 반례

119 고르기

세 자료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물 → [궁물]’

‘한여름 → [한녀름]’

‘칼날 → [칼랄]’

① 국물에서는 조음 위치가 유지되면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뀐다.

② 세 자료는 모두 음운 수가 유지되는 교체만 일어난다.

③ 한여름에서는 두 성분 사이에 원래 없던 ㄴ이 더해진다.

④ 칼날에서는 뒤의 ㄴ이 앞 ㄹ의 영향을 받는다.

⑤ 국물과 칼날은 음운 변동 현상이 다르지만 유형은 모두 교체이다.

120 표 채우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서의 빈칸을 완성하자.

[자료]

‘흙 + 일 → 흙일 → [흥닐]’. 변동 전 음운은 ‘ㅎ·ㅡ·ㄹ·ㄱ·ㅣ·ㄹ’이고, 발음의 음운은 ‘ㅎ·ㅡ·ㅇ·ㄴ·ㅣ·ㄹ’이다.
‘넋 + 이(조사) → 넋이 → [넉씨]’. 겹받침 ㄳ의 두 자음이 최종 발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보고서]

1. 흙일의 변동 전후 음운 수는 모두 (가)개이지만, 음운 변동 유형은 (나)·(다)·(라)의 세 가지이다. 그 근거는 ‘새로 생긴 소리 (마), 없어진 소리 (바), 다른 소리로 바뀐 대응 (사)’이다.
2. 넋이의 겹받침에서는 ㄱ이 받침에 남고 ㅅ이 뒤 첫소리에서 (아)으로 바뀐다. 따라서 이 자료에 자음군 단순화를 추가하면 안 된다.
3. 음운 수를 세기 전에 ‘표기·구성·최종 발음 중 무엇을 비교하는가’라는 (자)을 정해야 한다.

(나)~(라)는 순서 없이 쓰며, (자)는 ‘분석 출발점 / 음절 수 / 조음 위치’ 중 고른다.

■ 음운 맞대기 자료

비교	1	2	3	4	5	6	7
변동 전	ㅎ	ㅡ	ㄹ	ㄱ	ㅡ	ㅣ	ㄹ
발음	ㅎ	ㅡ	ㅡ	ㅇ	ㄴ	ㅣ	ㄹ

> ㅡ는 대응하는 소리가 없는 자리이며, 음운으로 세지 않는다.

단계 표에는 바뀐 소리·현상·유형을 쓰자.

답란

■ 흙일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흙+일 → 흙닐			
2	흙닐 → 흑닐			
3	흑닐 → [흥닐]			

넋이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넋이 → [넉씨]			

답란

빈칸	답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답 정답·해설

단답·분석 답은 뜻이 같으면 인정한다. 모두 고르기는 필요한 기호를 빠짐없이 써야 한다. 선지 표의 ○·×는 문장의 사실 여부를 나타내며, 틀린 선지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인 행이 정답이다.

선택형 빠른 정답

001 ③	003 ⑤	005 ②	007 ④	009 ①	011 ②	013 ⑤	015 ③
016 ④	018 ①	020 ②	021 ⑤	023 ③	025 ①	027 ④	030 ②
031 ④	033 ①	035 ③	037 ⑤	039 ②	042 ①	044 ④	047 ③
049 ⑤	051 ①	053 ④	055 ②	057 ⑤	059 ③	062 ④	064 ②
065 ①	067 ③	069 ⑤	072 ②	074 ④	077 ⑤	079 ①	082 ③
084 ②	087 ④	089 ①	092 ③	094 ⑤	096 ①	098 ④	100 ③
101 ⑤	103 ②	106 ①	108 ④	110 ②	112 ⑤	114 ③	116 ④
119 ②							

A1 같은 소리와 다른 소리를 구별하기

요약집 문법01 ①~⑤

001 목소리와 소리 단위

정답 ③

번호	○ / ×	까닭
①	×	목소리의 높이 차이만으로 음운 차이를 확정할 수 없다.
②	×	구체적 음성과 추상적 음운의 이름을 거꾸로 썼다.
③	○	**실제 소리가 달라도 같은 ㅂ 음운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④	×	음색만 달라졌다고 자음 수가 바뀌지는 않는다.
⑤	×	두 녹음은 모두 바다이며 뜻 차이는 제시되지 않았다.

002 최소 대립의 근거

정답 자음: 가·나 / 모음: 다

판단 근거 ‘발·팔’은 같은 자리의 ㅂ·ㅍ만 다르고, ‘배·새’는 ㅂ·ㅅ만 다르다. ‘발·벌’은 ㅏ·ㅓ만 다르다. 세 짝 모두 다른 소리는 같고 뜻이 구별된다. ‘발·팔’에서 자음의 세기만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음운이다.

003 뜻만 다른 짝의 한계

정답 ⑤

번호	○ / ×	까닭
①	×	뜻 차이와 함께 한 소리만 달라야 한다.
②	×	끝소리 ㄹ이 같아도 앞 자음·모음 두 자리가 다르다.
③	×	둘 다 한 음절이므로 근거가 틀렸다.
④	×	둘 다 세 음운이므로 근거가 틀렸다.
⑤	○	**ㄷ/ㅍ과 ㅗ/ㅜ의 두 자리가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004 길이와 억양의 정보

정답 가: 비분절 음운·길이 / 나: 비분절 음운·억양 / 다: 분절 음운·자음

판단 근거 가의 두 발음은 자음·모음의 배열이 같고 길이가 다르다. 나는 같은 배열 위에 문장 끝의 높낮이 변화가 얹힌다. 다는 ㅂ·ㅍ을 각각 떼어 비교할 수 있다. 나의 판단은 제시된 발화 상황에 대한 것이며, 억양만으로 모든 문장의 종류를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005 분절과 비분절의 구분

정답 ②

번호	○ / ×	까닭
①	×	음량을 키운다고 ㅁ이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다.
②	○	**ㅜ/ㅏ가 뜻을 구별하는 모음이므로 분절 음운이다.**
③	×	소리 길이의 차이는 기록에 없다.
④	×	억양 자료가 없다는 사실로 억양의 기능을 부정할 수 없다.
⑤	×	같은 사람이 말해도 ㅜ와 ㅏ는 다른 음운이다.

A2 문자·음운·음절의 단위 나누기

요약집 문법01 ④·⑥·⑭·⑮

006 초성 ㅇ과 종성 ㅇ

정답 5개 / 4개 / 2음절

판단 근거 낱자 표기는 ㅇ·ㅜ·ㅅ·ㅏ·ㄴ으로 다섯이다. 초성 ㅇ은 소리가 없으므로 음운은 ㅜ·ㅅ·ㅏ·ㄴ 네 개이다. 모음 ㅜ와 ㅏ를 중심으로 '우/산' 두 음절을 이룬다.

---

007 같은 글자의 다른 역할

정답 ④

번호	○ / ×	까닭
①	×	아의 초성 ㅇ은 소리가 없다.
②	×	앙의 초성 ㅇ은 소리가 없고 받침 ㅇ만 소리가 난다.
③	×	받침 ㅇ은 여린입천장소리·비음이다.
④	○	**아·앙 모두 한 음절이지만 소리 나는 자음은 0개·1개이다.**
⑤	×	음절 수가 같아도 음운 수는 1개·2개로 다르다.

---

008 된소리와 겹받침의 표기

정답 가 O / 나 X / 다 O

판단 근거 가의 소리는 ㄸ·ㅐ 두 개이다. 나는 최종 발음 [갑]의 ㄱ·ㅏ·ㅂ을 세어야 하므로 셋이며, 받침 자음은 ㅂ 하나이다. 다는 ㅗ·ㄹ·ㅣ 세 개이다. 표기에 여러 자음 요소가 보이는 것과 실제 발음에서 여러 자음이 남는 것은 별개이다.

---

009 음절 구성의 교차 분류

정답 ①

번호	○ / ×	까닭
①	○	**이 V, 너 CV, 온 VC, 집 CVC로 소리 구성이 맞다.**
②	×	초성 ㅇ을 소리 나는 자음으로 잘못 셌다.
③	×	너의 ㄴ과 온의 ㄴ 위치를 거꾸로 놓았다.
④	×	온·집의 받침 ㄴ·ㅂ을 빠뜨렸다.
⑤	×	초성 ㅇ을 세고 너·집의 자음 자리도 잘못 나누었다.

010 서로 다른 두 수 세기

정답 ㉠ 2음절 / ㉡ 3개

판단 근거 ‘여/우’이므로 두 음절이다. 음운은 j·ㅓ·ㅜ 세 개이다. ‘여’는 이중 모음의 두 음운이 한 음절의 모음 부분을 이룬 경우이다. 이중 모음을 언제나 두 음절로 세거나 초성 ㅇ을 두 번 더하면 안 된다.

A3 자음의 위치와 방법을 함께 읽기

요약집 문법01 ⑦~⑨

011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음

정답 ②

번호	○ / ×	까닭
①	×	ㅂ은 입술소리·파열음이므로 코로 내보내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②	○	**ㅁ은 입술소리·비음이므로 두 조건을 만족한다.**
③	×	ㄴ은 잇몸소리·비음이므로 입술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④	×	받침 ㅇ은 여린입천장소리·비음이다.
⑤	×	ㄹ은 잇몸소리·유음이다.

012 같은 기준과 다른 기준

정답 **가: 위치 다름·방법 같음 / 나: 위치 같음·방법 다름**

판단 근거 ㅍ은 입술, ㅋ은 여린입천장 소리이며 둘 다 파열음이다. ㄹ과 ㄴ은 모두 잇몸소리이지만 각각 유음과 비음이다. 자음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분류 기준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 없다.

013 방법 설명의 오류

정답 ⑤

번호	○ / ×	까닭
①	○	파열음은 막았던 공기를 터뜨리므로 맞다.
②	○	파찰음은 막았던 공기를 마찰시키며 내보내므로 맞다.
③	○	마찰음은 좁힌 통로에서 마찰을 일으키므로 맞다.
④	○	유음의 두 발음 방식을 설명했으므로 맞다.
⑤	×	**비음은 코로 공기가 나가므로 모두 막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014 울림소리 묶기

정답 **비음: ㄴ·ㅁ·ㅇ / 유음: ㄹ**

판단 근거 울림소리 자음은 비음 ㄴ·ㅁ·ㅇ과 유음 ㄹ이다. ㄱ은 파열음, ㅅ·ㅎ은 마찰음으로 안울림소리이다. ㅎ을 목청에서 난다는 이유로 울림소리에 넣는 것은 잘못이다.

015 교차표의 빈자리 추론

정답 ③

번호	○ / ×	까닭
①	×	㉠ ㄴ은 입술소리·비음이 아니다.
②	×	㉡ ㄹ은 여린입천장소리·비음이 아니다.
③	○	**㉠ ㅁ은 입술소리·비음, ㉡ ㅇ은 여린입천장소리·비음이다.**
④	×	ㅂ·ㅋ은 모두 파열음이므로 비음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⑤	×	ㄹ·ㄴ 모두 지정된 위치·방법을 충족하지 못한다.

A4 자음 분류의 조건을 함께 따지기

요약집 문법01 ⑦~⑩

016 세기만 다른 짝

정답 ④

번호	○ / ×	까닭
①	×	ㅂ·ㅁ은 파열음·비음으로 방법이 다르다.
②	×	ㄷ·ㄱ은 잇몸소리·여린입천장소리로 위치가 다르다.
③	×	ㅈ·ㅅ은 위치와 방법이 다르다.
④	○	**ㅅ·ㅆ은 잇몸소리·마찰음이고 세기만 예사·된으로 다르다.**
⑤	×	ㄴ·ㄹ은 비음·유음으로 방법이 다르다.

017 세 조건으로 자음 정하기

정답 **가 ㅋ / 나 ㅉ / 다 ㅅ**

판단 근거 위치로 후보를 좁힌 뒤 방법과 세기를 함께 적용한다. 가에서 ㄱ·ㄲ은 거센소리가 아니고, 나에서 ㅈ·ㅊ은 된소리가 아니다. 다에서 ㅆ은 된소리여서 조건에 맞지 않는다.

018 큰 목소리에 대한 오해

정답 ①

번호	○ / ×	까닭
①	○	**음량과 예사·된소리 구분은 별개의 기준이다.**
②	×	실험에서 크게 말해도 ㅂ을 유지했다.
③	×	실험에서 작게 말해도 ㅃ을 유지했다.
④	×	ㅃ은 두 자음을 잇댄 것이 아니라 한 자음이다.
⑤	×	작게 말한 빠에는 여전히 된소리 ㅃ이 있다.

019 분류표 수정하기

정답 **나: 파찰음→마찰음 / 다: 된소리→거센소리**

판단 근거 ㅆ은 잇몸소리·마찰음이므로 나의 '파찰음'을 '마찰음'으로 고친다. ㅋ은 여린입천장소리·파열음이면서 거센소리이므로 다의 '된소리'를 '거센소리'로 고친다. 가의 ㅌ은 세 분류가 모두 맞다.

020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정답 ②

번호	○ / ×	까닭
①	×	ㅊ은 거센소리이지만 파찰음이므로 제외한다.
②	○	**ㅋ·ㅌ·ㅍ은 모두 거센 파열음이다.**
③	×	ㄲ·ㄸ·ㅃ은 된소리이다.
④	×	ㅂ·ㄷ은 예사소리이다.
⑤	×	ㅌ·ㅍ도 조건에 맞는데 빠뜨렸다.

A5 단모음 표에서 이동과 공통점 찾기

요약집 문법01 ⑪~⑬

021 단모음의 세 기준

정답 ⑤

번호	○ / ×	까닭
①	×	ㅟ는 고모음이므로 중모음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②	×	ㅗ는 후설 모음이다.
③	×	ㅖ는 평순 모음이다.
④	×	ㅜ는 후설·고모음이다.
⑤	○	**ㅚ는 전설·원순·중모음으로 세 조건을 만족한다.**

022 하나의 기준만 바꾸기

정답 가 ㅗ / 나 ㅡ / 다 ㅖ

판단 근거 ㅓ는 후설·평순·중모음이다. 원순으로만 바꾸면 ㅗ, 고모음으로만 바꾸면 ㅡ, 전설로만 바꾸면 ㅖ가 된다. ㅜ는 후설·원순·고모음으로 두 기준이 바뀌므로 가나 나의 답이 아니다.

023 같은 높이에서 비교하기

정답 ③

번호	○ / ×	까닭
①	×	고모음은 혀 높이의 분류이며 높은 음정만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②	×	ㅣ·ㅟ 모두 전설 모음이다.
③	○	**ㅡ·ㅜ는 후설·고모음이며 입술 모양만 다르다.**
④	×	ㅜ는 후설 모음이다.
⑤	×	ㅣ·ㅡ 모두 평순 모음이다.

024 기준별 차이 추론하기

정답 앞뒤: ㅐ 전설·ㅗ 후설 / 높이: ㅐ 저·ㅗ 중 / 입술: ㅐ 평순·ㅗ 원순

판단 근거 ㅐ는 전설·평순·저모음, ㅗ는 후설·원순·중모음이므로 세 기준이 모두 다르다. 모음의 글자 모양이나 점의 수를 분류 근거로 삼지 않는다.

025 체계와 허용 발음 구별하기

정답 ①

번호	○ / ×	까닭
①	○	**10단모음 분류와 이중 모음 발음 허용을 함께 인정할 수 있다.**
②	×	단모음은 조음 중 혀·입술 모양을 유지한다.
③	×	고모음은 혀가 높은 모음이지 큰 목소리가 아니다.
④	×	허용 발음이 있다고 단모음 분류에서 빼지는 않는다.
⑤	×	ㅟ·ㅚ·ㅗ·ㅜ는 원순 모음이다.

A6 이중 모음의 구성과 음절 구별하기

요약집 문법01 ⑥·⑪~⑮

026 같은 이중 모음의 구성

정답 ㅒ = j+ㅐ / ㅝ = w+ㅓ / ㅢ = ㅡ+j

판단 근거 ㅒ는 j 계열, ㅝ는 w 계열 이중 모음이다. 이 책에서는 ㅢ를 단모음 ㅡ 뒤에 반모음 j가 이어진 구성으로 본다. j·w는 독립된 음절을 표시하는 글자가 아니다.

027 반모음의 기능

정답 ④

번호	○ / ×	까닭
①	×	단모음은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있다.
②	×	반모음은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없다.
③	×	공기를 막았다 터뜨리는 것은 파열음의 방법이다.
④	○	**두 소리의 공통점과 음절 형성의 차이를 모두 맞게 설명했다.**
⑤	×	j·w는 독립된 음절이 아니다.

028 음운 수와 음절 수

정답 가 1 / 나 2 / 다 2 / 라 2

판단 근거 두 자료는 각각 음운이 두 개이지만, ‘와’에서는 반모음 w가 단모음 ㅏ와 한 음절을 이룬다. ‘우아’의 ㅜ와 ㅏ는 각각 음절의 중심이다. 음운 수가 같아도 음절 수는 다를 수 있다.

029 잘못 세어 얻은 결론

정답 **음운 3개→2개 / 음절 2개→1개**

판단 근거 초성 ㅇ은 소리가 없어 j와 ㅐ 두 음운만 센다. 반모음 j는 단독으로 음절을 이루지 않고 ㅐ와 결합하므로 한 음절이다. '소리를 따로 분석한다'는 사실과 '음절을 따로 이룬다'는 사실은 다르다.

030 음운 체계의 종합 판별

정답 ②

번호	○ / ×	까닭
①	×	ㄱ·ㄴ은 맞지만 옳은 ㄹ을 빠뜨렸다.
②	○	**ㄱ·ㄴ·ㄹ은 맞고 ㄷ만 틀리므로 올바른 묶음이다.**
③	×	ㄷ은 틀리고 옳은 ㄱ·ㄹ을 빠뜨렸다.
④	×	틀린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빠뜨렸다.
⑤	×	w가 쓰여도 반드시 자음으로 시작하지는 않아 ㄷ이 틀리다.

B1 변동을 네 갈래로 나누기

요약집 문법02 ①~⑤

031 한 소리가 달라진 변화

정답 ④

과정 접는 →(비음화 · 교체) [점는]

번호	○ / ×	까닭
①	×	ㅂ은 대응하는 ㅁ으로 바뀌었으므로 탈락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②	×	ㅂ이 남고 ㅁ이 더해진 것이 아니다.
③	×	뒤 ㄴ도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축약이 아니다.
④	○	**ㅂ 하나가 ㅁ 하나로 바뀐 교체이다.**
⑤	×	ㄴ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발음된다.

032 줄어든 수가 같은 두 변화

정답 **가: 탈락·기존 소리 하나가 남음 / 나: 축약·새 소리 하나가 됨**

과정 가 A+B →(탈락) B / 나 A+B →(축약) C

판단 근거 가에서는 A가 없어지고 기존 B가 남는다. 나에서는 A와 B가 합쳐져 기존 두 소리와 다른 C가 된다. 모두 한 개 감소하지만 결과 소리의 성격이 다르므로 수만으로 두 종류를 구별할 수 없다.

033 변동의 분류 오류

정답 ①

과정 ㄱ+ㅎ →(축약) ㅋ / ㅎ+ㅏ →(탈락) ㅏ

번호	○ / ×	까닭
①	×	**두 자음 ㄱ·ㅎ이 새 ㅋ 하나가 되므로 탈락이 아니라 축약이다.**
②	○	ㄷ 하나가 ㄴ 하나가 되므로 교체이다.
③	○	ㅡ가 없어지고 기존 ㅓ가 남으므로 탈락이다.
④	○	ㅎ이 없어지고 기존 ㅏ가 남으므로 탈락이다.
⑤	○	원래 없던 ㄴ이 사이에 생기므로 첨가이다.

034 총수와 과정 구별하기

정답 **㉠ 유지 / ㉡ X**

과정 교체 0 + 탈락 -1 + 첨가 +1 → 전체 음운 수 유지

판단 근거 교체는 수를 바꾸지 않고, 탈락의 -1과 첨가의 +1이 서로 지워진다. 최종 수가 같아도 과정에는 교체·탈락·첨가 세 종류가 있다. 결과의 총수를 과정의 종류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

035 연음만 있는 자료

정답 ③

과정 돌이 →(연음: 변동 아님) [도리]

번호	○ / ×	까닭
①	×	굽는의 ㅂ→ㅁ 비음화가 있다.
②	×	좋아에는 ㅎ 탈락이 있다.
③	○	**돌이의 ㄹ은 같은 소리로 뒤 첫소리 자리만 옮긴다.**
④	×	먹고에는 ㄱ→ㄲ 된소리되기가 있다.
⑤	×	먹히다에는 ㄱ+ㅎ→ㅋ 축약이 있다.

B2 받침의 소리와 뒤 형태소 확인하기

요약집 문법02 ⑥·⑦

036 말끝과 조사 앞의 받침

정답 **가 [낟] / 나 ㄷ / 다 [나제]**

과정 낮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교체) [낟] / 낮에 →(연음) [나제]

판단 근거 말끝의 ㅈ은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에' 앞에서는 원래 ㅈ이 이어져 [나제]가 된다. 조사 앞에서도 먼저 ㄷ으로 바꾸어 [나데]로 만드는 분석은 맞지 않는다.

037 연음 전의 대표음

정답 ⑤

과정 옷에 →(연음) [오세] / 옷 안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교체) 옫 안 →(연음) [오단]

번호	○ / ×	까닭
①	×	조사 앞에서는 본래 ㅅ이 이어지므로 언제나 ㄷ은 아니다.
②	×	옷 안에서는 ㅅ이 ㄷ으로 바뀐 뒤 이어진다.
③	×	옷에는 ㅅ을 유지하므로 불필요한 두 교체를 넣지 않는다.
④	×	옷 안처럼 음운 변동과 연음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⑤	○	**조사 에와 실질 형태소 안의 차이가 받침 발음에 영향을 준다.**

038 대표음 표의 적용

정답 ㄱ / ㅂ / ㄷ / ㄱ

과정 ㄲ·ㅋ → ㄱ / ㅍ → ㅂ / ㅅ → ㄷ: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교체

판단 근거 밖의 ㄲ과 부엌의 ㅋ은 ㄱ으로, 숲의 ㅍ은 ㅂ으로, 낫의 ㅅ은 ㄷ으로 발음한다. 네 변화는 각각 자음 하나가 다른 자음 하나로 바뀌는 교체이다. ㄲ을 ㄱ 두 개로 세어 하나가 탈락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039 연음이 두 소리를 살리는 경우

정답 ②

과정 흙이 →(두 자음 유지·연음) [흘기]

번호	○ / ×	까닭
①	×	ㄹ은 흘의 받침으로 남아 있다.
②	○	**ㄹ은 앞 받침, ㄱ은 뒤 첫소리로 모두 발음된다.**
③	×	ㄱ도 기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④	×	ㄺ은 서로 다른 ㄹ·ㄱ 두 자음을 적은 것이다.
⑤	×	두 자음 모두 발음되어 탈락·첨가를 넣을 근거가 없다.

040 소리가 같아져도 표기는 다를 수 있다

정답 ㉠ O / ㉡ X / ㉢ O

과정 낫·낮·낯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낟] / 낫을·낮을·낯을 →(연음) [나슬]·[나즐]·[나츨]

판단 근거 말끝에서는 ㅅ·ㅈ·ㅊ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각각 원래 자음이 이어진다. 한 환경에서 발음이 같아지는 것과 낱말 전체가 동일해지는 것은 다르다. ㉡은 나의 자료와 직접 충돌한다.

B3 이웃한 자음의 영향 살피기

요약집 문법02 ⑧·⑨

041 비음화의 대응

정답 가 ㄱ→ㅇ / 나 ㄷ→ㄴ / 다 ㅂ→ㅁ

과정 막내 → [망내]: ㄱ→ㅇ / 믿는 → [민는]: ㄷ→ㄴ / 압문 → [암문]: ㅂ→ㅁ

판단 근거 세 변화 모두 비음 ㄴ·ㅁ 앞에서 파열음이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뀐다. 다는 전체 'ㅍ→ㅂ→ㅁ' 가운데 마지막 단계만 묻는다. 전체 표기를 보며 ㅍ→ㅁ만 쓰면 지정된 중간 단계를 생략한 답이 된다.

042 비음화와 조음 기준

정답 ①

과정 업무 →(비음화 · 교체) [엄무]

번호	○ / ×	까닭
①	○	**ㅂ·ㅁ은 입술소리이고 파열→비음의 방법만 달라진다.**
②	×	조음 위치는 입술로 유지되고 방법이 달라진다.
③	×	ㅁ은 비음이지 된소리가 아니다.
④	×	한 자음의 교체이므로 음운 수는 줄지 않는다.
⑤	×	ㅂ은 남지 않고 ㅁ으로 바뀐다.

043 유음화의 방향

정답 **바뀐 자음: ㄴ→ㄹ / 칼날: 앞의 ㄹ / 난로: 뒤의 ㄹ**

과정 칼날 → [칼랄] / 난로 → [날로]: ㄴ→ㄹ, 유음화 · 교체

판단 근거 칼날에서는 앞 받침 ㄹ이 뒤 첫소리 ㄴ에 영향을 주고, 난로에서는 뒤 첫소리 ㄹ이 앞 받침 ㄴ에 영향을 준다. 두 방향 모두 결과가 ㄹ인 유음화이다. 결과 발음의 두 ㄹ을 모두 새로 생긴 음운으로 세지 않는다.

044 ㄹ이 그대로 남지 않는 경우

정답 ④

과정 종로 → [종노] / 의견란 → [의견난]: ㄹ→ㄴ, 비음화 · 교체

번호	○ / ×	까닭
①	×	앞 ㄴ이 ㄹ로 바뀐 자료가 아니다.
②	×	앞 ㅇ은 그대로이고 뒤 ㄹ이 바뀐다.
③	×	결과는 ㄹ이 아니라 ㄴ이다.
④	○	**종로·의견란 모두 뒤 ㄹ→ㄴ의 비음화이다.**
⑤	×	앞 자음과 뒤 자음이 합쳐지는 축약이 아니다.

045 두 단계의 비음화

정답 가: ㄹ→ㄴ·비음화 / 나: ㅂ→ㅁ·비음화

과정 협력 →(유음의 비음화 · 교체) 협녁 →(비음화 · 교체) [혐녁]

판단 근거 먼저 ㄹ이 비음 ㄴ이 된다. 다음으로 ㅂ이 그 ㄴ 앞에서 비음 ㅁ이 된다. 두 단계 모두 유형은 교체이며, 비음화가 두 번 적용된 분석이다. 처음 표기의 ㄹ만 보고 곧바로 ㅂ→ㅁ의 '뒤 비음' 조건을 설명하면 중간 단계를 빠뜨린다.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협력 → 협녁	ㄹ→ㄴ	유음의 비음화	교체
2	협녁 → [혐녁]	ㅂ→ㅁ	비음화	교체

인정 범위 첫 단계의 현상을 '비음화'라고만 써도 인정한다.

B4 구개음화의 조건과 경계 확인하기

요약집 문법02 ⑩·⑱

046 조사 앞의 구개음화

정답 [바치] / ㅌ→ㅊ / 구개음화

과정 밭+이 →(구개음화 · 교체, 연음) [바치]

판단 근거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나 ㅊ으로 바뀐다. 자음 하나가 자음 하나로 바뀐 교체이다. ㅌ이 ㄷ으로 먼저 바뀌었다가 ㅈ이 되는 [바지]로 처리하지 않는다.

047 ㅣ가 있어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정답 ③

과정 마디 → [마디]: 구개음화의 형태소 결합 조건이 없음

번호	○ / ×	까닭
①	×	ㄷ은 조건을 만나면 구개음화할 수 있다.
②	×	ㅣ는 단모음이다.
③	○	**ㄷ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한 구조가 아니다.**
④	×	음절 수는 해당 구개음화의 조건이 아니다.
⑤	×	표기의 ㄷ도 환경에 따라 다른 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

048 같은 | 앞의 다른 형태소

정답 ㉠ O / ㉡ X / ㉢ O

과정 밭이 →(구개음화) [바치] / 밭이랑 →(ㄴ 첨가·음절의 끝소리 규칙·비음화) [반니랑]

판단 근거 가의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다. 나의 이랑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가와 같은 구개음화 조건이 아니다. 나에서는 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관련되어 [반니랑]이 된다. 글자 배열이 비슷해도 형태소의 성격이 다르면 적용 규칙이 달라진다.

049 축약 뒤의 구개음화

정답 ⑤

과정 ㄷ+ㅎ →(거센소리되기 · 축약) ㅌ →(구개음화 · 교체) ㅊ

번호	○ / ×	까닭
①	×	첫 단계는 두 자음이 합쳐진 축약이다.
②	×	첫 단계 축약, 둘째 교체로 분류해야 한다.
③	×	ㄷ+ㅎ은 탈락이 아니며 ㅌ→ㅊ은 축약이 아니다.
④	×	ㅌ→ㅊ은 새 자음이 더해진 첨가가 아니다.
⑤	○	**ㄷ+ㅎ→ㅌ은 축약, ㅌ→ㅊ은 교체이다.**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ㄷ+ㅎ → ㅌ	ㄷ+ㅎ→ㅌ	거센소리되기	축약
2	ㅌ → ㅊ	ㅌ→ㅊ	구개음화	교체

050 구개음화와 자음 체계

정답 **위치: 잇몸소리→센입천장소리·달라짐 / 방법: 파열→파찰·달라짐 / 세기: 거센→거센·유지**

과정 ㅌ(잇몸소리·파열음·거센소리) → ㅊ(센입천장소리·파찰음·거센소리)

판단 근거 ㅌ과 ㅊ은 모두 거센소리이지만 발음 기관의 장애 위치와 내보내는 방식이 다르다. ㅊ을 더 세게 말한 ㅌ으로만 설명하면 구개음화의 위치·방법 변화를 놓친다. 하나의 교체에서 여러 분류 성질이 함께 달라질 수 있다.

B5 된소리되기의 조건 구별하기

요약집 문법02 ②·⑪

051 된소리의 음운 수

정답 ①

과정 학교 →(된소리되기 · 교체) [학꾜]

번호	○ / ×	까닭
①	○	**ㄱ 하나가 ㄲ 하나로 바뀌므로 교체이며 음운 수 유지이다.**
②	×	ㄲ은 ㄱ 두 개로 세지 않는다.
③	×	새 자음 두 개가 첨가된 것이 아니다.
④	×	앞 받침 ㄱ도 남아 있으므로 두 ㄱ의 축약이 아니다.
⑤	×	ㄲ은 거센소리가 아니라 된소리이다.

052 같은 받침과 다른 결합

정답 ㄴ·ㄷ

과정 신-+-고 →(된소리되기) [신꼬] / 산+도 → [산도]

판단 근거 어간의 ㄴ·ㅁ 뒤에서 어미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조건은 명사와 조사의 결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는 어간과 어미, 나는 명사와 조사이다. ㄱ은 조건을 지나치게 넓혔고, ㄹ의 글자 수는 관련 규칙의 조건이 아니다.

053 ㄹ 뒤라는 조건의 한계

정답 ④

과정 갈등 → [갈뜽] / 알고 → [알고] / 갈 곳 → [갈꼳]

번호	○ / ×	까닭
①	×	ㄹ 뒤 자음을 모두 된소리로 바꾸는 규칙은 없다.
②	×	갈등·갈 곳에는 된소리되기가 있다.
③	×	알고의 제시된 표준 발음은 [알고]이다.
④	○	**ㄹ 뒤라는 조건 외에 한자어·어미 결합 등도 확인한다.**
⑤	×	갈 곳은 [갈꼳]이므로 ㄱ이 ㄲ으로 바뀐다.

054 조건에 맞는 예 추리기

정답 **가·다**

과정 안-+-다 → [안따] / 담-+-지 → [담찌]: 어간 뒤 어미의 된소리되기

판단 근거 가와 다는 각각 ㄴ·ㅁ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미가 붙는다. 나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이며 된소리도 없다. 라에는 된소리되기가 있지만 합성어의 성분 사이에서 일어나므로 문제에서 지정한 어간·어미 조건의 예는 아니다.

---

055 지나치게 넓힌 설명 반박하기

정답 ②

과정 알고 → [알고]: ㄹ 뒤 ㄱ이 예사소리로 유지됨

번호	○ / ×	까닭
①	×	갈 곳은 된소리가 나므로 반박 자료가 아니다.
②	○	**알고에는 ㄹ 뒤 ㄱ이 있으면서 예사소리로 유지된다.**
③	×	물고기는 된소리가 나므로 반박 자료가 아니다.
④	×	길가는 된소리가 나므로 반박 자료가 아니다.
⑤	×	먹는에는 ㄹ 뒤 ㄱ이라는 검토 조건 자체가 없다.

B6 겹받침에서 사라지는 자음 찾기

요약집 문법02 ③·⑦·⑬

056 기본 겹받침 처리

정답 **ㅅ / ㄹ / ㅂ / 자음군 단순화**

과정 넋 → [넉]: ㅅ이 없어짐 / 삶 → [삼]: ㄹ이 없어짐 / 여덟 → [여덜]: ㅂ이 없어짐

판단 근거 ㄳ에서는 ㅅ이 없어져 ㄱ이, ㄻ에서는 ㄹ이 없어져 ㅁ이, ㄿ에서는 ㅂ이 없어져 ㄹ이 남는다. 같은 자음군 단순화라도 늘 앞 자음 또는 늘 뒤 자음만 지우는 것은 아니다.

057 ㄻ의 기본형과 별도 조건

정답 ⑤

과정 넓다 → 널다 → [널따] / 밟다 → 밥다 → [밥따]

번호	○ / ×	까닭
①	×	넓다에서는 ㅂ이 없어진다.
②	×	밟다에서는 ㄹ이 없어진다.
③	×	새 ㄸ은 뒤 ㄷ의 교체이며 겹받침 축약이 아니다.
④	×	어간에 따라 같은 ㄻ의 남는 자음도 달라진다.
⑤	○	**넓다는 ㄹ, 밟다는 ㅂ이 남아 없어진 자음이 다르다.**

058 ㄺ 뒤의 어미 비교

정답 **가 ㄹ이 발음되지 않음 / 나 ㄱ이 발음되지 않음 / 다 ㄹ·ㄱ 모두 발음됨**

과정 맑다 → [막따] / 맑고 → [말꼬] / 맑아 → [말가]

판단 근거 맑다와 맑고의 겹받침 처리는 자음군 단순화이다. 특히 어간 ㄺ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ㄹ이 남는다. 맑아에서는 ㄹ은 받침, ㄱ은 다음 초성으로 모두 발음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없다. 뒤 된소리 여부와 겹받침에서 없어진 자음은 나누어 본다.

059 ㅀ에서 남은 자음의 다음 변화

정답 ③

과정 읊다 →(자음군 단순화 · 탈락) 읖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교체) 읍다 →(된소리되기 · 교체) [읍따]

번호	○ / ×	까닭
①	○	ㅀ의 ㄹ이 없어지는 자음군 단순화이다.
②	○	남은 ㅍ은 음절 끝에서 ㅂ으로 바뀐다.
③	×	**ㄹ이 없어진 뒤 ㅍ이 교체되므로 두 자음의 축약은 아니다.**
④	○	다의 ㄷ은 ㄸ으로 바뀐다.
⑤	○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된소리되기는 교체이다.

060 겹받침 분석의 오류 수정

정답 **나 / ‘값이’의 ㅅ은 탈락하지 않고 뒤 음절에서 된소리 ㅆ으로 발음된다.**

과정 값 → [갑]: 자음군 단순화 / 값이 → [갑씨]: 두 자음 유지·연음·된소리되기

판단 근거 값이에서는 ㅂ과 ㅅ이 모두 발음에 관여한다. ㅅ이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져 ㅆ으로 바뀐 것이므로 탈락 뒤 첨가로 쪼개지 않는다. 가는 말끝의 자음군 단순화이고, 다는 된소리의 음운 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B7 자음 탈락의 환경과 표기 비교하기

요약집 문법02 ⑭·⑮

061 ㄹ이 사라지는 조건

정답 **가 미는·O / 나 밀고·X / 다 미니·O**

과정 밀-+-는 → 미는 / 밀-+-고 → 밀고 / 밀-+-니 → 미니

판단 근거 -는과 -니 앞에서는 ㄹ이 탈락하고, -고 앞에서는 유지된다. ㄹ로 끝나는 어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어미 앞에서 ㄹ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이 ㄹ 탈락은 결과 표기에도 반영된다.

062 겹받침 단순화와 ㄹ 탈락

정답 ④

과정 닭 →(자음군 단순화) [닥] / 울-+-니 →(ㄹ 탈락) 우니

번호	○ / ×	까닭
①	×	닭의 현상 이름은 자음군 단순화이다.
②	×	우니의 현상 이름은 ㄹ 탈락이다.
③	×	두 현상 이름을 거꾸로 연결했다.
④	○	**닭은 자음군 단순화, 우니는 활용에서의 ㄹ 탈락이다.**
⑤	×	두 자료 모두 탈락 유형이며 축약·첨가가 아니다.

063 ㅎ 탈락과 표기의 관계

정답 **㉠ ㅎ / ㉡ 많아 ㄴ·싫어 ㄹ / ㉢ 표기에는 남아 있음**

과정 많아 →(ㅎ 탈락·연음) [마나] / 싫어 →(ㅎ 탈락·연음) [시러]

판단 근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ㄶ·ㅀ의 ㅎ이 탈락한다. 나머지 ㄴ과 ㄹ은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진다. 발음에서 없어져도 ‘많아·싫어’의 표기는 유지되므로 발음형을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니다.

064 ㅎ 탈락 뒤의 유음화

정답 ②

과정 뚫는 →(ㅎ 탈락 · 탈락) 뚤는 →(유음화 · 교체) [뚤른]

번호	○ / ×	까닭
①	×	첫 단계에서 없어진 소리는 ㄹ이 아니라 ㅎ이다.
②	○	**ㅎ이 없어진 뒤 남은 ㄹ의 영향으로 ㄴ→ㄹ이 일어난다.**
③	×	ㅎ이 ㄹ로 교체되는 단계가 아니다.
④	×	기존 ㄴ이 ㄹ로 바뀐 교체이지 ㄹ 첨가가 아니다.
⑤	×	첫 단계는 탈락이므로 둘 다 교체가 아니다.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뚫는 → 뚤는	ㅎ이 없어짐	ㅎ 탈락	탈락
2	뚤는 → [뚤른]	ㄴ→ㄹ	유음화	교체

065 탈락의 반영 양상

정답 ①

과정 갈-+-는 →(ㄹ 탈락) 가는 / 낳아 →(ㅎ 탈락) [나아]

번호	○ / ×	까닭
①	×	**낳아는 ㅎ이 표기에 남으므로 반드시 지운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	가는은 ㄹ, 낳아는 ㅎ이 없어져 종류가 다르다.
③	○	둘 다 용언 어간에 어미가 붙는다.
④	○	낳아의 ㅎ은 발음되지 않아도 표기에 남는다.
⑤	○	가는의 결과 표기에는 ㄹ이 없다.

B8 모음의 변화에서 남은 소리 확인하기

요약집 문법02 ⑫·⑯·⑰·⑲

066 어간 끝 ㅡ의 처리

정답 **가: ㅡ+ㅓ→ㅓ / 꺼 — 나: ㅡ+ㅏ→ㅏ / 잠가**

과정 끄-+-어 →(ㅡ 탈락) 꺼 / 잠그-+-아 →(ㅡ 탈락) 잠가

판단 근거 두 결합 모두 어간 끝 ㅡ가 탈락하고 어미의 모음이 남는다. 결과에서 ㅓ·ㅏ가 보인다고 그 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두 모음이 새로운 제3의 모음으로 합쳐진 축약도 아니다.

---

067 동일 모음의 처리

정답 ③

과정 ㅓ+ㅓ →(동일 모음 탈락) ㅓ

번호	○ / ×	까닭
①	×	기존 같은 ㅓ 중 하나가 없어져 새 모음의 축약이 아니다.
②	×	제시한 분석에는 j가 없다.
③	○	**같은 ㅓ 두 개 중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이다.**
④	×	새 반모음이 더해지지 않았다.
⑤	×	결합한 모음 부분은 두 음운에서 한 음운으로 줄었다.

---

068 반모음화의 전후 비교

정답 **㉠ ㅗ→w / ㉡ ㅏ / ㉢ 2개→2개 / ㉣ 교체**

과정 ㅗ+ㅏ →(반모음화 · 교체) w+ㅏ

판단 근거 어간 단모음 ㅗ가 반모음 w로 바뀌고 어미의 ㅏ는 유지된다. 반모음도 한 음운으로 세므로 음운 수는 두 개 그대로이다. 두 음절이 한 음절이 된 것과 두 음운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르다.

069 세 가지 모음 변화의 구별

정답 ⑤

과정 가 ㅏ+ㅏ→ㅑ: 탈락 / 나 ㅏ+ㅣ→ㅐ: 축약 / 다 ㅣ+ㅓ→j+ㅓ: 교체

번호	○ / ×	까닭
①	×	가·나의 탈락과 축약을 거꾸로 분류했다.
②	×	ㅏ+ㅣ→ㅐ는 축약, ㅣ→j는 교체이다.
③	×	가는 교체가 아니고 다는 탈락이 아니다.
④	×	가의 탈락과 다의 교체를 모두 축약으로 잘못 묶었다.
⑤	○	**가 탈락 / 나 축약 / 다 교체로 세 자료가 모두 맞다.**

070 축약과 반모음화의 차이

정답 **나 / '펴'의 모음 부분은 j와 ㅓ 두 음운으로 이루어져 음운 수가 줄지 않는다.**

과정 아이 →(모음 축약) 애 / 피어 →(반모음화 · 교체) 펴

판단 근거 아이→애는 두 단모음이 새 단모음 하나가 되는 모음 축약이다. 피어→펴에서는 ㅣ가 j로 바뀌고 ㅓ가 남아 두 음운을 유지한다. 음절 수의 감소라는 공통점만으로 음운 수의 감소까지 같다고 할 수 없다. 아이→애의 굳어진 변화를 모든 ㅏ+ㅣ 결합에 적용하지도 않는다.

B9 ㅎ이 만나는 소리에 따라 분석하기

요약집 문법02 ④·⑮·⑱

071 앞뒤가 바뀌어도 축약

정답 **가 ㅎ+ㄷ→ㅌ / 나 ㅂ+ㅎ→ㅍ / 다 ㄱ+ㅎ→ㅋ**

과정 ㅎ+ㄷ→ㅌ / ㅂ+ㅎ→ㅍ / ㄱ+ㅎ→ㅋ: 거센소리되기 · 축약

판단 근거 ㅎ이 앞에 놓인 가와 뒤에 놓인 나·다 모두 두 자음이 하나의 거센소리로 합쳐진다. ㅎ 하나만 없어진 뒤 남은 자음이 그대로 발음된 경우가 아니므로 단순한 ㅎ 탈락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072 ㅎ의 탈락과 축약 비교

정답 ②

과정 넣어 →(ㅎ 탈락) [너어] / 넣지 →(거센소리되기 · 축약) [너치]

번호	○ / ×	까닭
①	×	넣지는 ㅎ과 ㅈ이 합쳐져 ㅊ이 된다.
②	○	**넣어는 ㅎ 탈락, 넣지는 자음 축약이다.**
③	×	넣어에는 ㅊ이 없고 넣지는 두 소리의 축약이다.
④	×	넣어의 ㅎ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없어졌다.
⑤	×	넣지의 ㅎ·ㅈ은 남지 않고 ㅊ으로 합쳐진다.

073 겹받침 안의 ㅎ

정답 **많고: ㅎ+ㄱ→ㅋ, ㄴ 유지 / 옳지: ㅎ+ㅈ→ㅊ, ㄹ 유지**

과정 많고: ㅎ+ㄱ→ㅋ, ㄴ 유지 / 옳지: ㅎ+ㅈ→ㅊ, ㄹ 유지

판단 근거 많고의 ㄶ에서 ㅎ이 ㄱ과 축약되고 ㄴ은 남는다. 옳지의 ㅀ에서는 ㅎ이 ㅈ과 축약되고 ㄹ은 남는다. 겹받침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ㅎ을 무조건 탈락시키면 거센소리가 되는 까닭을 설명하기 어렵다.

074 거센소리되기의 적용 범위

정답 ④

과정 좋소 → [조쏘]: ㅆ은 거센소리가 아닌 된소리

번호	○ / ×	까닭
①	×	ㅆ은 ㅅ의 거센소리가 아니라 된소리이다.
②	×	된소리와 거센소리는 다른 분류이다.
③	×	ㅆ은 한 자음이다.
④	○	**ㅆ은 된소리이므로 모든 자음이 거세어진다는 결론을 반박한다.**
⑤	×	ㅆ은 두 ㅅ을 잇댄 것이 아니라 한 자음이다.

075 같은 감소량과 다른 과정

정답 **㉠ 둘 다 1개 / ㉡ 가는 ㅎ이 없어지고 나머지가 남지만, 나는 ㅎ과 ㄱ이 합쳐져 새 거센소리 ㅋ이 된다.**

과정 쌓아 →(ㅎ 탈락) [싸아] / 쌓고 →(거센소리되기 · 축약) [싸코]

판단 근거 가의 소리 수는 ㅎ이 없어져 하나 줄고, 나는 두 자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 준다. 감소량은 같지만 가에서는 기존 소리를 유지하고 나에서는 두 소리가 합쳐진 결과가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한 개 줄었다'만으로 답을 설명하면 두 종류를 구별하지 못한다.

B10 첨가된 소리가 다음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약집 문법02 ⑤·⑧·⑨·⑳

076 자음이 새로 들어간 자리

정답 **ㄴ / '입'의 첫소리 자리**

과정 맨+입 →(ㄴ 첨가) [맨닙]

판단 근거 맨의 끝소리 ㄴ은 원래 있던 자음이고, 입의 첫소리 자리에 ㄴ 하나가 더해진다. 결과에 ㄴ이 두 번 보인다고 둘 다 새로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자음으로 끝나는 접두사와 ㅣ로 시작하는 뒤 성분의 결합을 확인한다.

077 첨가가 만든 비음화 조건

정답 ⑤

과정 막일 →(ㄴ 첨가) 막닐 →(비음화) [망닐]

번호	○ / ×	까닭
①	×	새 ㄴ이 더해지고 ㄱ→ㅇ도 있으므로 ㄱ→ㄴ만은 아니다.
②	×	먼저 ㄴ이 생겨야 ㄱ 앞의 비음화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③	×	ㄴ은 첨가되고 ㅇ은 기존 ㄱ의 교체 결과이다.
④	×	ㄱ·ㄴ이 합쳐지는 축약이 아니다.
⑤	○	**ㄴ 첨가가 뒤의 비음 조건을 만들어 ㄱ→ㅇ이 일어난다.**

078 최종 ㄹ의 출발점

정답 **중간형: 서울+녁 / ㄴ이 첨가된 뒤 앞의 ㄹ 영향으로 ㄹ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정 서울+역 →(ㄴ 첨가 · 첨가) 서울녁 →(유음화 · 교체) [서울력]

판단 근거 서울의 끝 ㄹ은 원래부터 있다. 역 앞에 먼저 ㄴ이 첨가되고, ㄹ 뒤의 ㄴ이 유음화되어 최종 첫소리가 ㄹ이 된다. 표기와 최종 발음만 비교하여 중간 변화를 생략하면 첨가된 음운을 잘못 지정하게 된다.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서울+역 → 서울녁	ㄴ이 더해짐	ㄴ 첨가	첨가
2	서울녁 → [서울력]	ㄴ→ㄹ	유음화	교체

079 ㄴ 첨가의 조건과 조사

정답 ①

과정 밤이 →(연음) [바미] / 밤일 →(ㄴ 첨가) [밤닐]

번호	○ / ×	까닭
①	○	**조사 이와 실질 형태소 일의 차이 때문에 같은 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	밤이는 조사 앞에서 연음하므로 ㄴ을 더하지 않는다.
③	×	밤일에는 ㄴ 첨가가 있다.
④	×	밤이의 ㅁ은 뒤 첫소리로 이어지며 없어지지 않는다.
⑤	×	첨가되는 ㄴ은 밤일의 표기에 적혀 있지 않다.

080 원칙을 예외까지 확대하지 않기

정답 **가 O / 나 X / 다 O**

과정 금융 → [금늉]/[그뮹] / 송별연 → [송벼련]: 제시된 허용 범위 확인

판단 근거 금융의 [금늉]에는 ㄴ 첨가가 있고, [그뮹]은 ㅁ이 이어지는 발음이다. 송별연은 ㄴ을 첨가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규칙의 주된 조건을 아는 것과 사전의 개별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함께 필요하다.

B11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화 구별하기

요약집 문법02 ⑤·⑫·㉑

081 기존 단모음이 남는 첨가

정답 **㉠ j / ㉡ 유지 / ㉢ 2개→3개**

과정 ㅣ + ㅓ →(반모음 첨가) ㅣ +j+ ㅓ

판단 근거 앞의 ㅣ는 그대로 남아 첫 음절을 이루고, j가 ㅓ 앞에 더해진다. ㅣ 자체가 j가 된 반모음화가 아니다. 음운 수는 늘지만 단모음 두 개가 각각 중심을 이루므로 두 음절은 유지된다.

082 반모음이 있는 두 결과

정답 ③

과정 이기어 →(반모음화 · 교체) 이겨 / 피어 →(반모음 첨가) [피여]

번호	○ / ×	까닭
①	×	가는 교체이므로 두 자료 모두 첨가가 아니다.
②	×	가는 모음 부분 2개 유지, 나는 3개로 증가한다.
③	○	**이겨에서는 ㅣ→j, 피여에서는 기존 ㅣ가 남고 j가 더해진다.**
④	×	이겨의 해당 ㅣ는 j로 바뀌어 별도 음절로 남지 않는다.
⑤	×	피여의 기존 ㅣ는 남고 j가 더해진다.

083 허용 범위를 정확히 읽기

정답 **가·나**

과정 피어 → [피여] / 되어 → [되여]: 허용 / 세어·패어: 같은 첨가 허용 안 됨

판단 근거 피-는 ㅣ, 되-는 ㅚ로 끝나므로 제시된 허용 조건에 든다. 세-와 패-는 각각 ㅖ·ㅐ로 끝나 제외된다. 실제로 이어 말하기 편해 보인다는 느낌을 표준 발음의 허용 근거로 삼지 않는다.

084 음절 수로만 생긴 오답

정답 ②

과정 ㅚ+ㅓ →(반모음 첨가) ㅚ+j+ㅓ

번호	○ / ×	까닭
①	○	[되여]는 되/여로 두 음절이다.
②	×	**두 음절 유지와 달리 해당 음운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③	○	앞 단모음 ㅚ는 그대로 남는다.
④	○	원래 없던 j가 더해지므로 첨가이다.
⑤	○	더해진 j가 ㅓ와 이중 모음을 이룬다.

085 허용과 필수의 차이

정답 **가 X: 반드시 [피여]로만→[피어]를 원칙으로 하되 [피여]도 / 나 O**

과정 피어 → [피어](원칙) / [피여](허용)

판단 근거 허용 발음은 원칙 발음을 몰아내는 유일한 정답이 아니다. [피여]를 선택한 경우에 반모음 첨가를 분석하며, [피어]에는 그 첨가가 없다. 현상을 분석하는 일과 모든 발화에서 그 현상을 강제하는 일을 구별해야 한다.

B12 사잇소리의 분석 출발점 정하기

요약집 문법02 ⑪·⑳·㉒

086 사잇소리를 종류로 나누기

정답 **가 ㅅ→ㅆ·교체 / 나 ㄴ이 하나 더해짐·첨가**

과정 배+사공 → [배싸공]: ㅅ→ㅆ / 이+몸 → [인몸]: ㄴ 첨가

판단 근거 가는 뒤 성분의 ㅅ이 된소리 ㅆ으로 바뀐다. 나는 합성 전 '이+몸'에 없던 ㄴ이 두 성분 사이에 하나 더해진다. 이 문항의 출발점은 사이시옷을 적은 표기가 아니라 합성 전 성분이므로 잇몸의 ㅅ에서 출발한 설명과 구별한다.

087 두 개가 더해지는 경우

정답 ④

과정 대+잎 →(경계에 ㄴ·ㄴ 첨가, 마지막 ㅍ→ㅂ) [댄닙]

번호	○ / ×	까닭
①	×	앞 받침과 뒤 첫소리에 ㄴ 두 개가 더해진다.
②	×	더해진 소리는 ㄹ이 아니라 ㄴ이다.
③	×	합성 전 대+잎에는 ㅅ이 없다.
④	○	**합성 전 경계에 없던 ㄴ·ㄴ이 두 자리에 더해진다.**
⑤	×	받침 ㄴ과 첫소리 ㄴ은 각각 하나씩 센다.

088 표기에서 출발한 분석

정답 가 ㄴ / 나 ㄷ / 다 ㄴ / 라 ㅂ

과정 깻잎 →(ㄴ 첨가) 깻닢 →(ㅅ→ㄷ) 깯닢 →(비음화) 깬닢 →(마지막 ㅍ→ㅂ) [깬닙]

판단 근거 표기 '깻잎'에는 이미 사이시옷 ㅅ이 있다. 따라서 그 ㅅ의 ㄷ→ㄴ 교체와 뒤 ㄴ의 첨가를 나누어 분석한다. 합성 전 '깨+잎'에서 출발하여 ㄴ 두 개의 첨가를 설명하는 방식과 분석 출발점이 다르다. 끝의 ㅍ→ㅂ은 경계의 변화와 별도이다.

089 사이시옷이 없어도 나는 소리

정답 ①

과정 산+길 →(된소리되기) [산낄]

번호	○ / ×	까닭
①	○	**산길에서는 사이시옷 표기 없이 ㄱ→ㄲ의 사잇소리가 난다.**
②	×	사이시옷 표기와 사잇소리 유무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③	×	ㄲ은 한 자음의 교체 결과이다.
④	×	표기에 ㄲ이 없어도 제시한 발음에서 ㄲ이 난다.
⑤	×	산의 ㄴ은 원래 있던 받침이다.

090 한 표기의 두 허용 발음

정답 가 O / 나 X / 다 O

과정 나뭇가지 → [나무까지](원칙) / [나묻까지](허용)

판단 근거 두 발음 모두 된소리가 나며, 둘째에는 ㄷ 받침이 추가로 드러난다. 사이시옷이라는 이름의 '시옷'이 실제 발음에서 늘 ㅅ으로 발음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문항에서는 허용 발음의 관찰 차이를 묻고, 특정한 한 발음만 정답이라고 제한하지 않는다.

B13 여러 변동의 순서와 개수 정리하기

요약집 문법02 ①~㉒ 종합

091 탈락 뒤의 교체

정답 1단계: 자음군 단순화·탈락 / 2단계: 비음화·교체

과정 흙만 →(자음군 단순화 · 탈락) 흑만 →(비음화 · 교체) [흥만]

판단 근거 ㄺ에서 ㄹ이 없어져 ㄱ이 남는다. 그 ㄱ이 뒤의 비음 ㅁ 앞에서 ㅇ으로 바뀐다. 최종 받침 ㅇ이 원래 겹받침 중 하나였던 것이 아니며, ㄹ과 ㄱ이 합쳐져 ㅇ이 된 축약도 아니다.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흙만 → 흑만	ㄹ이 없어짐	자음군 단순화	탈락
2	흑만 → [흥만]	ㄱ→ㅇ	비음화	교체

092 유형 수와 횟수

정답 ③

과정 ㅊ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교체) ㄷ →(비음화 · 교체) ㄴ

번호	○ / ×	까닭
①	×	두 현상이 모두 교체이므로 유형은 하나이다.
②	×	ㅊ→ㄷ과 ㄷ→ㄴ의 두 번을 한 번으로 잘못 셌다.
③	○	**유형은 교체 하나이고 제시한 적용 횟수는 두 번이다.**
④	×	유형 수와 적용 횟수를 모두 잘못 셌다.
⑤	×	유형은 셋이 아니고 교체 하나이다.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첫 받침 ㅊ → ㄷ	ㅊ→ㄷ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2	그 ㄷ → ㄴ	ㄷ→ㄴ	비음화	교체

093 빠진 중간 단계 복원

정답 **1단계: 색+연필 → 색년필 / ㄴ이 더해짐 / ㄴ 첨가 / 첨가; 2단계: 색년필 → [생년필] / ㄱ→ㅇ / 비음화 / 교체**

과정 색+연필 →(ㄴ 첨가) 색년필 →(비음화) [생년필]

판단 근거 원래 연필의 첫소리 자리에는 자음 ㄴ이 없다. ㄴ 첨가를 거쳐 ㄱ이 비음 앞에 놓여야 ㄱ→ㅇ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첨가와 비음화는 별개이지만 앞 단계가 뒤 단계의 환경을 만드는 관계이다.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색+연필 → 색년필	ㄴ이 더해짐	ㄴ 첨가	첨가
2	색년필 → [생년필]	ㄱ→ㅇ	비음화	교체

094 독립적인 변화를 한 순서에 묶지 않기

정답 ⑤

과정 A·B가 각각 C의 조건을 만듦 / D는 다른 자리의 ㅍ→ㅂ

번호	○ / ×	까닭
①	×	C의 비음화를 설명하려면 A의 ㄴ이 먼저 필요하다.
②	×	C에서 바뀔 ㄷ은 B에서 먼저 확인한다.
③	×	마지막 ㅍ→ㅂ은 ㄴ 첨가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④	×	A·B 사이와 독립된 D의 순서까지 하나로 고정할 근거가 없다.
⑤	○	**A·B가 C에 필요하되 D의 위치까지 유일하게 고정하지 않는다.**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A: 꽃+잎 → 꽃닢	ㄴ이 더해짐	ㄴ 첨가	첨가
2	B: 첫 받침 ㅊ → ㄷ	ㅊ→ㄷ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3	C: 그 ㄷ → ㄴ	ㄷ→ㄴ	비음화	교체
4	D: 마지막 받침 ㅍ → ㅂ	ㅍ→ㅂ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095 음운 수가 같은 복합 변동

정답 ㉠ **교체·탈락·첨가** / ㉡ **6개·6개** / ㉢ **X**

과정 삯+일 →(ㄴ 첨가) 삯닐 →(자음군 단순화) 삭닐 →(비음화) [상닐]

판단 근거 ㄴ 첨가로 하나 늘고, 자음군 단순화로 하나 줄어 수의 변화가 서로 지워진다. 마지막 비음화는 수를 바꾸지 않는다. 변동 전후에 여섯 개라는 같은 결과만 남아도, 중간 과정의 첨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ㄳ의 두 자음과 된소리 한 자음을 같은 방식으로 세지 않는다.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삯+일 → 삯닐	ㄴ이 더해짐	ㄴ 첨가	첨가
2	삯닐 → 삭닐	ㅅ이 없어짐	자음군 단순화	탈락
3	삭닐 → [상닐]	ㄱ→ㅇ	비음화	교체

음운 수 변동 전 6개 → 발음 6개. 유형은 교체·탈락·첨가이며, 전후의 수만으로 첨가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C1 자료의 분류 기준 검증하기

요약집 문법01·문법02 종합

096 분류 기록 함께 확인하기

정답 ①

번호	○ / ×	까닭
①	○	**가의 ㅉ과 다의 ㄲ는 모든 기록이 맞다.**
②	×	나는 ㅁ을 파열음으로 잘못 분류했다.
③	×	나는 비음, 라는 된소리여서 두 기록이 틀리다.
④	×	라는 ㄸ을 거센소리로 잘못 분류했다.
⑤	×	나의 잘못된 파열음 분류를 포함했다.

097 표기 대립과 소리 대립

정답 가 아니요 / 나 ㅅ·ㅈ / 다 아니요

판단 근거 말끝에서는 둘 다 [낟]이므로 그 환경의 소리만으로 ㅅ·ㅈ 대립을 관찰할 수 없다. 조사 앞 [나시]·[나지]에서는 둘째 음절 첫소리의 차이가 드러난다. 말끝에서 대립이 드러나지 않아도 낱말의 표기와 뜻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글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을 실제 발음의 최소 대립으로 곧바로 옮기지 않는다.

098 두 변동과 자음 체계

정답 ④

번호	○ / ×	까닭
①	×	가는 방법만, 나는 위치·방법 모두 달라진다.
②	×	가의 파열음→비음 변화와 나의 방법 변화를 빠뜨렸다.
③	×	두 자료 모두 한 자음의 교체이므로 자음 수가 유지된다.
④	○	**ㄷ→ㄴ은 위치 유지·방법 변화, ㅌ→ㅊ은 위치·방법 변화이다.**
⑤	×	ㄴ은 비음, ㅊ은 거센소리로 된소리가 아니다.

099 같은 이동인지 판정하기

정답 ㉠ A·B 모두 입술 모양, 평순→원순 / ㉡ ㅐ: 전설·중모음·평순, ㅡ: 후설·고모음·평순 / ㉢ 아니요

판단 근거 A는 전설·중이라는 조건을, B는 후설·고라는 조건을 유지하며 입술 모양만 바꾼다. '어떤 기준이 바뀌었는가'와 '출발점의 모든 성질이 같은가'는 다른 질문이다. 같은 방향의 이동이라고 출발 모음과 결과 모음이 각각 같은 분류를 갖는 것은 아니다.

100 자음과 모음의 공통 분류 논리

정답 ③

번호	○ / ×	까닭
①	×	A의 ㅉ은 된소리이므로 거센소리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②	×	B의 ㅣ는 평순이므로 원순 유지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③	○	**ㅊ은 지정한 거센 파찰음, ㅟ는 지정한 전설·원순·고모음이다.**
④	×	A의 ㅌ은 위치·방법이 달라지고 B의 ㅚ는 높이가 달라진다.
⑤	×	A의 ㅋ은 위치·방법이 다르고 B의 ㅖ는 높이·입술도 다르다.

C2 같은 표기를 다른 환경에서 분석하기

요약집 문법01·문법02 종합

101 같은 받침의 세 환경

정답 ⑤

과정 숯을 → [수츨] / 숯만 → 숟만 → [순만] / 숯과 → 숟과 → [숟꽈]

번호	○ / ×	까닭
①	○	숯을은 원래 ㅊ을 뒤로 이어 발음한다.
②	○	숯만의 첫 받침은 ㅊ→ㄷ→ㄴ으로 분석한다.
③	○	숯과에서는 뒤 ㄱ도 ㄲ으로 바뀐다.
④	○	조사의 첫소리가 달라 서로 다른 발음이 나타날 수 있다.
⑤	×	**ㄲ은 한 음운이므로 교체 후 음운 수는 늘지 않는다.**

102 실질 형태소 앞의 겹받침

정답 **가: ㄹ은 첫 음절 받침, ㄱ은 뒤 음절 첫소리 / 나: ㄹ / 다: 조사 ‘이’ 앞과 실질 형태소 ‘앞’ 앞의 겹받침 처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과정 흙이 → [흘기] / 흙 앞에 → 흑 앞에 → [흐가페]

판단 근거 흙이에서는 ㄹ과 ㄱ이 모두 남지만, 실질 형태소 앞과 이어 발음하는 흙 앞에에서는 ㄺ이 ㄱ으로 줄어든 뒤 이어진다. ‘앞+에’의 ㅍ은 조사 앞에서 본래 소리로 이어져 [페]를 이룬다. 모음 시작이라는 한 조건만으로 판단하면 형태소 성격에 따른 차이를 놓친다.

103 탈락·연음·교체 구별하기

정답 ②

과정 앉다 → 안다 → [안따] / 앉아 → [안자] / 앉는 → [안는]

번호	○ / ×	까닭
①	×	옳은 ㄴ을 빠뜨렸다.
②	○	**ㄱ의 ㅈ이 없어짐과 ㄴ의 두 자음 발음이 모두 맞다.**
③	×	ㄷ은 ㄸ을 두 음운으로 잘못 셌다.
④	×	ㄹ은 받침·첫소리 ㄴ 중 하나가 없어진다고 잘못 말했다.
⑤	×	ㄷ·ㄹ이 모두 틀리다.

104 하나의 겹받침과 두 분석 경로

정답 **가: ㅌ이 없어짐(자음군 단순화)·ㄷ→ㄸ / 나: 없음, ㄹ·ㅌ 모두 발음 / 다: 핥다**

과정 핥다 → 할다 → [할따] / 핥아 → [할타]

판단 근거 핥다는 ㄾ에서 ㅌ이 없어지는 탈락과 ㄷ→ㄸ 교체가 있다. 핥아는 ㄹ이 받침에 남고 ㅌ이 뒤 첫소리로 이어지므로 두 자음이 유지된다. 나의 연음은 소리 자체의 변화가 아니므로, 제시 자료에서 핥아에 교체·탈락·첨가·축약을 임의로 넣지 않는다.

105 유형이 같은 두 자료 찾기

정답 **가·다**

과정 젊다 → 점다 → [점따] / 값만 → 갑만 → [감만] / 넣고 → [너코] / 돌을 → [도를]

판단 근거 가는 자음군 단순화(ㄹ이 없어짐)와 ㄷ→ㄸ, 다는 자음군 단순화(ㅅ이 없어짐)와 ㅂ→ㅁ이 있다. 둘 다 유형은 교체와 탈락이다. 교체 현상은 된소리되기와 비음화로 다르다. 나는 축약, 라는 연음만 있어 일어난 유형이 없다.

C3 형태소 경계와 예외 판단하기

요약집 문법01·문법02 종합

106 같은 글자 이의 다른 역할

정답 ①

과정 굳이 → [구지]: 구개음화 / 솜이 → [소미]: 연음 / 솜이불 → [솜니불]: ㄴ 첨가

번호	○ / ×	까닭
①	○	**뒤가 같아 보여도 앞 자음과 형태소 성격에 따라 분석이 달라진다.**
②	×	솜이·솜이불에는 구개음화가 없다.
③	×	굳이·솜이에는 ㄴ 첨가가 없다.
④	×	굳이의 구개음화와 솜이불의 ㄴ 첨가를 무시했다.
⑤	×	접미사는 형식 형태소이다.

107 음절 감소를 세 종류로 나누기

정답 **㉠ 가 반모음화·나 동일 모음 탈락·다 — 탈락 / ㉡ 가 / ㉢ X**

과정 ㅗ+ㅏ→w+ㅏ: 반모음화 / ㅏ+ㅏ→ㅏ: 동일 모음 탈락 / ㅡ+ㅓ→ㅓ: ㅡ 탈락

판단 근거 가는 단모음 ㅗ가 w로 바뀌어 두 음운을 유지한다. 나는 같은 ㅏ 가운데 하나가, 다는 어간의 ㅡ가 없어져 각각 음운 하나가 준다. 세 자료 모두 해당 모음 결합 부분의 음절 수는 줄지만, 그 현상을 모두 축약이라고 부를 수 없다.

108 혀 위치 표와 변동 규칙 구별하기

정답 ④

번호	○ / ×	까닭
①	×	분류표에서 가깝다고 언제나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②	×	분류표는 발음 규칙의 적용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
③	×	제시한 ㅏ·ㅐ는 모두 저모음이다.
④	○	**분류상 차이만으로 모든 낱말의 표준 발음 규칙을 정할 수 없다.**
⑤	×	ㅐ는 평순 모음이다.

109 형태소 정보를 포함한 반례

정답 나

과정 신고 → [신꼬] / 안기다 → [안기다]: 어미·접미사의 조건 구별

판단 근거 나는 실제로 ㄴ 뒤에 ㄱ이 있으나 ㄱ이 예사소리로 유지되므로 가설을 반박한다. 어간 뒤 어미의 된소리되기를 피동·사동 접미사 -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가는 가설에 맞는 예이고, 다·라는 ㄴ+ㄱ 조건이 아니므로 이 가설의 직접적인 반례가 아니다.

110 적용 범위가 다른 두 첨가

정답 ②

과정 한여름 → [한녀름] / 송별연 → [송벼련] / 되어 → [되여] 허용 / 세어 → [세여] 허용 안 됨

번호	○ / ×	까닭
①	×	송별연처럼 ㄴ 첨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
②	○	**현상마다 조건·예외·허용 범위를 따로 확인한다.**
③	×	ㅣ·ㅚ·ㅟ의 허용을 모든 모음으로 넓힐 수 없다.
④	×	허용 발음이 원칙 발음을 비표준으로 만들지 않는다.
⑤	×	ㄴ 첨가는 자음 ㄴ, 반모음 첨가는 반모음 j가 더해진다.

C4 복합 변동의 과정 검증하기

요약집 문법01·문법02 종합

111 C에 필요한 두 조건을 따로 확인하기

정답 ㉠·㉡ **A·B(순서 바꾸어도 인정)** / ㉢ **하나로 정할 수 없음**

과정 A(ㄴ 첨가) → C(비음화) ← B(음절의 끝소리 규칙)

판단 근거 C의 비음화에는 첨가된 ㄴ과 바뀔 대표음 ㄷ이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A와 B에서 각각 C로 화살표가 모인다. 이 조건만으로 A와 B 사이까지 하나의 순서를 정하지는 않는다.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A: 홑+이불 → 홑니불	ㄴ이 더해짐	ㄴ 첨가	첨가
2	B: 첫 받침 ㅌ → ㄷ	ㅌ→ㄷ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3	C: 그 ㄷ → ㄴ	ㄷ→ㄴ	비음화	교체

112 변하지 않은 받침과 바뀐 자음 구별하기

정답 ⑤

과정 물+약 →(ㄴ 첨가 · 첨가) 물냑 →(유음화 · 교체) [물략]

번호	○ / ×	까닭
①	×	ㄷ은 이중 모음의 음운 수와 음절 수를 혼동했다.
②	×	옳은 ㄱ의 ㄴ 첨가 뒤 유음화를 빠뜨렸다.
③	×	옳은 ㄹ의 유형 분류를 빠뜨렸다.
④	×	틀린 ㄷ을 넣고 옳은 ㄴ을 빠뜨렸다.
⑤	○	**ㄱ·ㄴ·ㄹ은 모두 맞고 ㄷ만 틀리다.**

113 세 현상의 늘고 준 수 세기

정답 **가 교체·탈락 / 나 2회 / 다 1개 감소 / 라 X**

과정 읊고 →(자음군 단순화 · 탈락) 읖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교체) 읍고 →(된소리되기 · 교체) [읍꼬]

판단 근거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한 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는 교체 두 번이다. 교체는 수를 바꾸지 않으므로 전체에서는 ㄹ 하나만 줄어 다섯 음운이 네 음운이 된다. 규칙의 개수와 없어지는 음운의 수를 같은 숫자로 볼 수 없다.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읊고 → 읖고	ㄹ이 없어짐	자음군 단순화	탈락
2	읖고 → 읍고	ㅍ→ㅂ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3	읍고 → [읍꼬]	ㄱ→ㄲ	된소리되기	교체

음운 수 변동 전 5개 → 발음 4개. 교체 2회는 수를 바꾸지 않고 자음군 단순화에서 ㄹ 1개만 줄어든다.

114 중간형을 잘못 만든 분석

정답 ③

과정 굳히다 →(거센소리되기 · 축약) 구티다 →(구개음화 · 교체) [구치다]

번호	○ / ×	까닭
①	×	A뿐 아니라 B도 맞다.
②	×	B뿐 아니라 A도 맞다.
③	○	**A의 축약과 B의 교체가 맞고 C의 연음만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	C는 실제 ㄷ+ㅎ→ㅌ→ㅊ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⑤	×	C까지 옳다고 할 수 없다.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굳히다 → 구티다	ㄷ+ㅎ→ㅌ	거센소리되기	축약
2	구티다 → [구치다]	ㅌ→ㅊ	구개음화	교체

115 전체 수가 유지되는 여러 경로

정답 **가·나·라 / 하나로 확정할 수 없음**

과정 교체 0 / 첨가 +1 / 탈락 -1 / 축약 -1 → 후보별 합산

판단 근거 가의 교체는 수를 바꾸지 않는다. 나는 +1과 -1, 라도 +1과 -1이 서로 지워진다. 다는 축약으로 하나 줄어 조건과 맞지 않는다. 수가 유지된다는 정보만으로는 가·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실제 소리의 대응과 변동 조건이 더 필요하다.

C5 새 자료의 분석 오류 수정하기

요약집 문법01·문법02 종합

116 출발점이 달라도 함께 성립

정답 ④

과정 뒤+일 → [뒨닐]: 경계에 ㄴ 두 개 첨가 / 뒷일 → [뒨닐]: ㄴ 첨가 + ㅅ→ㄷ→ㄴ

번호	○ / ×	까닭
①	×	B도 표기에서 시작한 분석으로 성립한다.
②	×	A도 합성 전 두 성분을 비교한 분석으로 성립한다.
③	×	사이시옷을 반드시 [ㅅ]으로 발음하는 것은 아니다.
④	○	**출발점이 달라 ㄴ 두 개의 첨가와 첨가·교체 분석이 함께 성립한다.**
⑤	×	최종 발음이 같아도 비교하는 출발점은 다르다.

117 오류의 근거까지 고치기

정답 **나: ㅃ은 하나의 자음 음운이다. / 라: w와 ㅕ가 한 음절의 모음 부분을 이루므로 '줘'는 한 음절이다.**

과정 ㅜ+ㅕ →(반모음화 · 교체) w+ㅕ: 두 음운이 한 음절의 모음 부분을 이룸

판단 근거 가는 초성 된소리 ㅃ을 하나로, 받침 ㅇ을 소리 나는 자음으로 센 옳은 기록이다. 다는 반모음화에서 두 음운이 유지되는 기준을 반영한다. 나는 글자 모양을 음운 수로, 라는 음운 수를 음절 수로 잘못 옮긴 기록이다. 두 오류는 모두 분석 단위를 섞은 데서 생긴다.

118 주장을 반박할 자료 고르기

정답 **A: 가 / B: 다**

과정 닭을 → [달글]: 두 자음 유지 / 좋은 → [조은]: ㅎ 탈락·표기는 유지

판단 근거 가는 겹받침 ㄺ의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므로 A의 '어떤 환경에서든'을 반박한다. 다는 ㅎ이 발음에서 없어져도 표기에 남으므로 B의 '반드시'를 반박한다. 나는 ㄹ 탈락이 표기에도 반영된 사례이고, 라는 탈락이 아니라 교체여서 두 주장의 직접적인 반례가 아니다.

119 세 자료의 공통점과 차이

정답 ②

과정 국물 → [궁물]: 비음화 / 한여름 → [한녀름]: ㄴ 첨가 / 칼날 → [칼랄]: 유음화

번호	○ / ×	까닭
①	○	국물의 ㄱ→ㅇ은 조음 위치 유지·파열음→비음 변화이다.
②	×	**한여름은 ㄴ 첨가로 음운 수가 하나 늘므로 모두 유지가 아니다.**
③	○	한여름의 두 성분 사이에 ㄴ이 더해진다.
④	○	칼날은 앞 ㄹ의 영향으로 뒤 ㄴ→ㄹ이 일어난다.
⑤	○	국물은 비음화, 칼날은 유음화이며 둘 다 교체이다.

120 최종 분석 보고서 완성

정답 **가 6 / 나~라 교체·탈락·첨가 / 마 ㄴ / 바 ㄹ / 사 ㄱ→ㅇ / 아 ㅆ / 자 분석 출발점**

과정 흙+일 → 흙닐 → 흑닐 → [흥닐] / 넋이 →(두 자음 유지·연음·된소리되기) [넉씨]

판단 근거 흙일에는 ㄴ 첨가, ㄺ의 ㄹ이 없어지는 자음군 단순화, 남은 ㄱ의 비음화가 있다. 첨가의 +1과 탈락의 -1이 서로 지워져 여섯 음운을 유지한다. 넋이에서는 ㄱ과 ㅅ이 모두 발음에 관여하며, ㅅ이 ㅆ으로 교체된다. ㅅ 탈락과 ㅆ 첨가를 임의로 넣지 않는다. 두 자료 모두 최종 수만 보지 말고 각 소리의 대응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흙일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흙+일 → 흙닐	ㄴ이 더해짐	ㄴ 첨가	첨가
2	흙닐 → 흑닐	ㄹ이 없어짐	자음군 단순화	탈락
3	흑닐 → [흥닐]	ㄱ→ㅇ	비음화	교체

넋이

단계	모습	바뀐 소리	현상	유형
1	넋이 → [넉씨]	ㅅ→ㅆ	된소리되기(연음도 있음)	교체

음운 수 흙일은 변동 전 6개 → 발음 6개. 보고서 (나)~(라)는 교체·탈락·첨가를 순서와 관계없이 쓰면 인정한다.